•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9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9월 3일(음력 8월 4일) 수요일(주간)



선자식 17

금각사 주지 만수 스님
"도 이루려면 가난 먼저 배워라"



5

영봉 스님 특별 기고
"미얀마 난민촌에 자비를"



19

제1회 이상시문학상수상자
이승훈 시인 선정



돈연 법사 선시 특강 13
대자유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9

동방대학원대 백원기 교수
"심우장 성역화 해야"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찰청장 파면하라"

8·27 범불교도대회서 20만 불자 요구…정부 침묵

"대한민국 정부는 선교의 도구가 아니다.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은 사과하라."

8월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구호가 적힌 300여개의 만장(輓章)과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 1만여명 등 20만여명의 불자들로 뒤덮였다.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사상 최대규모로 성공리에 봉행된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이 주최하고 봉행위원회(상임봉행위원장 원학)가 주관한 이번 범불교도대회는 낮 12시 30분부터 식전공연, 오후 2시부터 본 대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평화행진을 한 뒤 해산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정치권도 관심, 여야 딴 목소리

범불교도대회 상임봉행위원장 원학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단법석의 법회를 갖게 된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종교 계층 이념간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사부대중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 경찰청장등 공직자 파면과 엄중문책, 종교차별 금지 법제화, 시국 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 실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불교계는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과 실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함으로써, 불교계의 대사회적 위상을 과시했다는 자부심도 드러났다. 실제로 주요 방송과 일간지는 일제히 불교도대회를 집중 보도하며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도 불교계의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야권은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고, 여권은 종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록 정부가 관련돼 일어난 일이지만 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당장 법을 고쳐 불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불교계의 정당한 요구에 소극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화만 키웠다며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을 일제히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지도부는 집회 현장에 직접 나섰다.

靑 "천천히 설득" 불자들 분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교 편향의 진원지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청와대가 종교편향을 시정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불자들의 준엄한 사자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경찰청장 파면, 국민대화합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불교계에 약속한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불교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문화재 유지보수 예산 확대,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 등이 골자다.

추석 이후 권역별 규탄 대회

하지만, 이는 불교계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쇠귀에 경읽기'식의 대응임을 불교계는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아래, 봉행위원회는 8월 31일 초하루법회를 기해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항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추석이후 영남권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권역별 정부규탄 범불교도대회'에 대비해 8 · 27대회를 준비해 온 사무처 조직을 상설팀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실 · 부장, 국장급 스님들은 종교차별의 완전종식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종도들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의미로 집행부 총사퇴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봉행위 대변인 승원 스님은 "이명박 정부가 하루 속히 종교차별에 참회하고 국민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불교계 요구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공언대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와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교차별을 종식시키고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실현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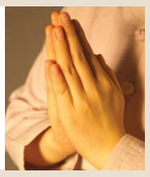
종교 화합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로 나아갈 것인가, 종교 차별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주사위가 어디로 던져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김성우 · 조동섭 · 가연숙 · 노덕현 기자)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20만여명의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로 성공리에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0-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인재 양성' 불교도대회가 남긴 과제

2008년 8월 27일 오후 2시.

한반도 사찰의 범종이 일제히 공업중생의 미혹을 타일렀다. 악도에서 헤매는 중생을 위한 대예참이다. 헌법파괴와 종교차별을 일삼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자 봉행된 범불교도대회지만 이날 떠오른 한 생각은 절박한 '인재 불사'였다.

이날 불교도들은 참구했다. '장로 대통령이 제안한 물질중심의 축복과 편파적인 종교 확장만이 지속가능한 인류의 대안인가. 조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연기의 관계를 공감할 때 상생의 씨앗이 발아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불교가 다종교 시대 평화의 버팀목임을 자부하는 불자들은 실상을 알리고자 일제히 주장자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참회와 권청의 법석 현장에는 여성과 중·장년 불자가 대부분이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 동자승에서 오지 토굴에 주석중인 노스님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불자대열 속에서 젊은 피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불교 인재 양성에 무관심했던 잃어버린 30년을 절감한 순간이다.

종교의 권력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도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실용정부 100일 여간 불거진 종교편향은 극명하다. 지난 4월 인사정책에 참고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대상 종교조사를 하더니 전체 299명의 18대 국회의원 중 불자의원 비중은 13.7%, 개신교의원은 19.7%, 가톨릭의원은 17.0%로 전체 국회의원 중 36.7%를 기독교의원이 차지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준 종교편향적 행보가 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명백한 이치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난 불교지도자의 부재는 더 이상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영근 염증을 터트려 고름을 내야함을 반증한다. 반면 가톨릭의 경우 신자는 남한 인구의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어 모범사례가 된다.

난국에 처한 한국불교가 모색할 전략은 바로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범불교도대회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불교는 이제부터라도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구체적인 현실 대안을 제시할 때다. 이념에 전도돼 실용을 방관한 과거가 사색과 토론의 시간이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진보된 불교를 실천할 시기다.

수행과 생활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교인재개발원과 불교아카데미의 마이리더스클럽은 리더십 교육의 한 모델이 된다. 현대문화와 불교사상을 접목하고 꾸준히 재조명할 책임감 있는 불교지도자를 발굴 양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범불교도대회가 불자에게 전하는 사자후가 아닐까.

20만 호법보살, 불법수호·불교중흥 한마음

8·27 범불교도대회 이모저모

헌정 사상 유래 없이 많은 불자가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야단법석을 펼쳤다.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 동참한 불자 20여만 명은 한마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준수와 종교차별 종식을 촉구했다. 범불교도대회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8월 2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종교편향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마친 스님과 신도들이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조계사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방방곡곡서 올라 온 버스 3000여대=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의 불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무려 3000여대의 버스가 서울시내 도로를 장엄했다.

◇대회 질서 유지와 불자 권익 지킨 호법단=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사단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1000여명의 호법단은 대회질서 유지, 행진대열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외부단체와 충돌방지 등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8월 27일 오후 2시, 범불교도대회 시작과 동시에 양산 통도사·순천 송광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33번의 범종이 타종돼, 반야의 법음을 울렸다.

◇범패·회심곡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려=범불교도대회 본 행사 전부터 모인 대중들은 헌법파괴 및 종교차별 종식을 바라는 '서원지 쓰기'와 범패와 합창, 회심곡, 타악 등 식전 문화공연을 함께했다.

◇도로 정체로 참석 못한 불자 많아=도로정체로 대회가 끝날 때 까지도 행사장에 도착 못한 불자들이 많았다. 삼버스 50여 대로 올라 온 부산 삼광사 불자들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빙자해 차량통제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 봉헌' 영상물 호응=범불교도대회 중 서울시청 대형 모니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종교편향 관련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장로입니다"로 시작되는 '서울시 봉헌 예배' 영상에 불자들은 고개를 흔들며 "저렇게 행동하니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밖에…" 라며 탄식했다.

◇학인스님 연비의식 생략=범불교도대회 본행사 중 '기도 및 참회' 시간에 300여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연비의식은 돌연 취소됐다. 행사장 앞쪽에 마련된 어른스님 좌석에 생각보다 많은 중진스님들이 착석한데다, 바로 뒤에 마련된 학인스님 좌석에 태고종 스님들이 앉았기 때문.

◇평화의 '석가모니불 정근' 행진=대회 현장에 동참한 20만명 가운데 지방에서 상경한 이를 제외한 불자들은 사홍서원으로 집회 1부를 마무리 하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세종로사거리~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불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번'이나 플래카드로 대신한 채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가장 평화적이고도 장엄한 행진시위를 연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의료부스 설치, 안전사고는 없었다=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의료부스를 설치하고 구급차와 이동검진차량을 준비했으나, 큰 사고 없이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불자들 머문 자리 쓰레기 없어=행사 후, 지저분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서울시청 앞 광장은 깨끗했다. 불자들의 솔선수범과 봉행위 봉사단 노력이 일군 결과였다.

◇'예수 천국' 피켓 눈살=대회장 인근 광화문사거리에서는 광화문사거리까지 메운 불자들에게 '예수 천국' 피켓을 들고 선교하는 목회자가 눈에 띄여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회일 일부 개신교도 금식기도 돌입='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는 범불교도대회가 "꺼진 촛불집회를 종교탄압 빌미로 살리려는 의도"라며 대회일 금식기도를 했다.

◇대회장 정치인 방문 줄이어=대회장에는 한나라당 주호영·최병국·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이 찾아 관심을 표했다. 법회 후에는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천태종 경천 스님 등을 예방했다.

◇전세버스 렌트비만 16여억원=전국의 불자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렌트비만 16여억원. 행사진행 경비 수억원을 포함하면 총 행사비용은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간첩사건·대회 물타기 의혹=범불교도대회일 여간첩 사건이 터졌다. 3년여의 수사기간을 거쳐 지난 7월 구속한 원모씨 사건을 범불교도대회일에 공개한 것은 정부의 '범불교도대회 물타기' 꼼수라는 비판이 드세다. 실제 범불교도대회는 톱기사감이었으나 여간첩사건에 밀려 보도됐다. 특별취재팀

"장로 대통령 냉혈자본주의 맞서 오체투지 수행"

수경 스님, 4일부터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리산-계룡산 순례

"이명박 장로 대통령의 자본주의인 실용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서 오체투지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8월 27일 비장한 대회사를 발표해 불자들의 심금을 울린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지리산~계룡산을 지나 북한 묘향산에 이르는 오체투지 수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8월 28일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생명과 평화의 작은 소리를 합께 나누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진심어린 기도로 우리 사회와 온 세상의 생명과 평화를 열고자 '사람과 생명, 평화를 위한 오체투지 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과 문 신부는 9월 4일 오후 2시 지리산 노고단에서 출범 행사를 갖고, 1차로 약 2개월의 일정으로 지리산에서 계룡산 중악단까지 오체투지로 순례한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 단식정진 회향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정부의 헌법파괴와 종교차별 종식을 위해 8월 11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진행된 조계종 국장단 스님과 재가종무원들의 릴레이 단식정진이 8월 28일 회향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 스님과 총무국장 혜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원우회(회장 장영욱) 등 100여명이 참석한 회향식에서 대중은 "이번 단식정진 회향은 다시 시작하는 입재로 종교편향이 종식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계사 신도회 차원에서 ▲공개토론회 개최 ▲서울지역 사찰시국법회 개최 ▲종교차별금지법 청원활동 등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금을 캐는 광부는 목숨을 걸고 갱도에 들어갑니다. 불교 속에는 금보다 억 만 배나 더 귀한 보물들이 무더기로 함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목숨을 걸고 찾아나서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불 때마다 목숨을 건다는 귀명은 잘도 쓰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불교의 언저리만 소득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대승기신론을 썼고 그것을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승은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주옥같은 해설을 남기셨습니다.
이 해설이 동서양의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극찬하고 있는 불세출의 명저서 대승기신론 해동소라는 것입니다.

이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독보적으로 심층연구 강의하는 곳이 바로 원효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기 마음인 목숨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원효센터에서 일심에 대한 원효대사의 박진감 넘치는 해설의 숨결을 감동스럽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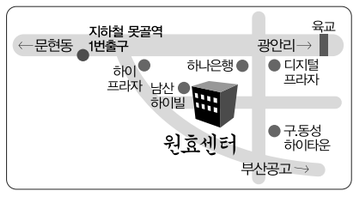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 疏·別記
8期 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6,7期회원 현재 수강중 -

개강안내
■법 사 : 공파스님
■개 강 : 9월 4일(목) 오후 8시
■장 소 : 원효센터 智悲光殿
■기 간 : 1년
■교 재 : 무료 - 해동소(고려대장경판)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10만원

법회안내
■ 1부 : 단체 예불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 2부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6기 수강 중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7기 수강 중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8기 모집 중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반
■ 3부 : 일반신자, 기초교리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공파 스님 저서**
• 부처님의 유언
• 천수경의 원본경전
• 극락세계 1, 2, 3
• 원효전집 6권.
• The Vajra Sutra(영판).
• 바이로차나 1.
그 외 다수.



☎(051)611-3808 e-mail : zero-pa@hanmail.net ■http://cafe.daum.net/wonhyocenter ※9월 4일(목) 오후 8시에 대승기신론 해동 소 공개강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65-6번지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출구에서 부산공고방향·하나은행 뒷편



8월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20만여 불자가 모여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사과·파면 없으면 승려대회 개최

8·27 범불교도대회 "화합 · 중흥 의지 다진 계기" … 전국 지역별대회도 고려

8 · 27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8월 27일 대회에 약 20만명이 참가하면서 불자들의 단합과 불교중흥의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불교계 의지를 드러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교계 요구에 대해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지역별 범불교도대회와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교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봉행위원회 대변인 승원 스님은 8월 28일 논평을 통해 "범불교도대회를 여법하게 봉행한 것에 대해 모든 불자들과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회에서 확인한 불자와 시민들의 종교화합과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종교평화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강원이 방학 중이고, 선방이 해제철이라 수좌승들이 만행을 떠났는데도 1만 명의 승려가 모인 것은 불자들이 받아들이는 '종교 편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봉행위원회의 평가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한 불교계는 추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석 이후 영남권을 필두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8월 31일 초하루법회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법회'를 개최한 봉행위원회는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한 단계 강도를 높여 승려대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승려대회가 열린다면 조계종 소속 스님 1만3000여 명을 비롯해 태고종 6000여 명, 천태종 500여 명 등 모두 2만여 스님이 집결하게 된다. 이 대회에는 수행에 전념하는 수좌스님들이나 원로, 대덕스님들까지 참여하는 만큼 신도들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력은 엄청나다.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일부 스님들이 '소지(燒指)' 또는 '소신(燒身)' 공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점을 감안할 때 승려대회가 봉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충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부대중의 준엄한 사자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경찰청장의 파면, 국민대화합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장관 사과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항의 운동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봉행위원회는 추석이후 영남권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권역별 정부규탄 범불교도 대회'에 대비해 9월 초 8 · 27 대회 평가와 봉행위원회의 조직개편,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총사퇴 등 장기적인 대정부 항의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 여당은 불교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깊어지는 불교계와의 갈등의 골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어야 한다.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직자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도, 경제 살리기도, 나라의 선진화도 불가능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스님들 쓸데없는 짓 말고 예수 믿으라"

장경동 목사 범불교도대회 앞두고 미국서 망언 … 편향사례 줄이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8 · 27 범불교도대회를 전후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종교편향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니터링 감시 강화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범불교도대회를 계기로 각 종단과 언론사에 관련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종교편향 내지 차별 사례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전망이다.

◇ **장경동 목사 "스님들 쓸 데 없는 짓말고 예수 믿으라"=**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침례교회 담임목사)는 8월 11일 미국 뉴욕순복음교회 집회에서 "내가 장경동교단을 만들면 안 되듯이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이어 그는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산다" 등의 망언을 했다.

◇ **구리시청, 두레교회 위장 준공 해줘=** 경기도 구리시 의회는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레교회 건축허가변경에 시청이 준공처리까지 해주었으며,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 위장준공 후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는 이어 "박영순 구리시장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현재 밀알교회 담임집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레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예배로 유명한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다.

◇ **노동부, 설문조사서 '스님'을 '중'으로 표기=**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KEIS) 실시 중인 '2008년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조사' 설문지에서 '승려' 부분에 '중'을 명시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2003년부터 근로자특성과 업무특성, 노동시장정보를 조사, 활용 목적으로 실시돼 청소년 진로상담등에도 사용된다. 불교계는 '중'이란 표현은 '승려' '스님'을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오현섭 여주시장 '복음EXPO' 발언사과=** "하나님 선물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복음박람회로 만들겠다"고 간증(본지 694호 2면 보도)했던 오현섭 여수시장이 8월 25일 개인성명을 발표해 유감의 뜻을 전했으나, 불교계 반응은 싸늘하다. 공식사과가 아닌 개인성명 형식인데다, 성명서 내용도 진정성이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일부 언론매체의 종교편향성 지적과 관련하여'라는 성명서에서 "모든 종교인을 포함해 시민들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담아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적절치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근본주의적 사고가 문제"

기독교 인사들 종교 차별 관련 반성 촉구

사상최대 규모의 대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로 종교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야기한 가운데, 기독교 인사들이 잇따라 이명박 정부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종교간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사진)는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대회 연대사를 통해 불교계의 주장을 옹호했다. 김 신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정부는 실용이란 미명하에 정교분리의 대원칙마저도 저버리고 말았다"며 "참된 길, 진리의 길, 정의와 평화의 길에 지지와 격려를 전해드린다"고 강조했다.

KNCC의 권오성 목사 역시 28일 모 방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정부 인사들의 종교편향"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언덕교회)도 같은 날 모 방송에 출연해 "큰 실수와 잘못 때문에 불교도의 항의를 받은 것은 그



리스도인의 명예가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종교편향을 비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도 홈페이지(www.koreanchinese.tv)에서 "기독교 일각의 근본주의적 사고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해결을 위해 꾸준한 종교간 대화, 인내와 관용, 반성과 화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종교편향은 인권침해"

불교 · 원불교인권위 공동 성명

"종교편향은 가장 큰 인권침해다."

불교 · 원불교 인권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에 대한 사과와 중단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와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는 8월 25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 폄훼 · 종교차별을 사과하고 국민주권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전통사찰 역사문화경관 지원

국토부 지침 개정고시

전통사찰이 뒤늦게 역사문화경관 자원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조계종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경관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8월 27일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김성우 기자

봉 (사)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창립 · 불교태권도시범단 창단식 행

우리민족의 고유한 무술인 태권도는 그 근원이 불무이며 선무술인 동시에 그 바탕을 불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여 대승불교의 이념과 실행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위대한 부처님의 사상을 널리 포교하지 못하고 세계 200여개국에 태권도를 보급한 종주국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물론 국내에도 태권도를 통한 포교에 주도권을 잃어버린 현실을 불제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불교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선포교 담당을 위해 불교 태권도 연맹 및 시범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초 대 합 니 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금번 2008 불교박람회장에서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창립과 아울러 불교태권도시범단 창단식을 거행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총재 정혜안

◆일 시 : 2008년 9월 5일 (금) 오후 2시
◆장 소 : 일산 한국국제선시장 KINTEX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031-810-8114)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

세계최초로 사단법인 세계불교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는 순수 위력격파대회이며, 주먹 및 손날, 발 격파를 중심으로 여성격파 대학,일반 종합격파를 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위력격파만을 위한 시합이 주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한 모든 경연부분에는 유급단이 무관하며 태권도를 주 종목으로 하는 불교연맹이지만,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의 폭을 넓여 태권도와 타 무술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 : 2008. 10. 3 (1일간)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
상 금 : 500만원, 왕중왕 벨트
주 최 :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주 관 :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 조직위원회
연 락 처 : 031-963-2345 / 010-9500-3977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86번지 대회조직위원회
대회접수기간 : 2008. 9. 20일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 :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 조직위원회
E-mail : lasung7415@hanmail.net
Fax 031-963-2392
우편접수 : 2008 국제왕중왕 격파대회 조직위원회

세 계 불 교 태 권 도 연 맹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86번지 / 031-963-2345

8·27 범불교도대회 이후는?

오피니언 리더 8인에게 묻다

8월 27일 2000만 불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범불교도대회가 20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종교편향 종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열린 대회는 불자들의 응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과 종교편향 사건 예방을 위해 불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불교계 오피니언리더 8인에게 범불교도대회 소감과 향후 전망, 대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종교차별 해결때까지 결집된 의지 보여야"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종호 스님

이명박 대통령이 원인이니 문제해결도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불자들 모두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그치지 말고, 일관된 의지로 결집해 행동해야 한다.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목소리만큼 불교계 자성의 소리도 키워야 한다. 종교편향 종식 노력만큼, 불교계 내부 제도 개선과 불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인재불사로 불자 사회지도자 육성해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불교적 사상과 실천의지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그릇된 생각과 편향된 행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며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

"불교도 사회현안에 목소리 내야"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상임위원장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불교는 스님, 신도 상관없이 사회 각 현안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관망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지역 각 사찰과 신도회도 이번 대회로 활동을 그치지 않고, 연대를 강화해 지역 범불교도대회 등 활동에 나서야 한다.

"권역별로 불자들 규탄의지 보여야"



조계종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

한 번의 범불교도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반응에 맞춰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불교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범불교도대회에 이어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등 권역별로 지속적인 행동을 펼쳐야한다. 포교사단도 종단 외호단체로서 종단 결의에 따라 여법한 활동을 펼치겠다.

"상설기구 설립, 모니터링 감시활동 필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그 동안의 종교편향 등 종교 · 사회문제는 불자들부터 의식화 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불자들은 모이고 나섰어야 했다. 상설기구 설립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에게 종교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대정부활동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대화와 소통 통해 국민화합 이루자"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그동안 관용이라는 말로 사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불교에 대한 참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원을 하는 '범불교도대회'였다. 불자들은 이제부터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깨어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종교차별과 종교강요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구체적 대안 없으면 불자들 또 나설 것"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회장

불자들은 불교소외와 조그마한 권력으로부터의 이득이라는 작고 속 좁은 생각을 던지고 만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참 보살로 거듭 정진해야 한다. 정부도 2000만 불자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촛불이 광명의 등불이 되어 국민저항의 중심에 불교계가 나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오만한 태도 변할 때까지 투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회장

전국의 20만 불자들이 모여 장엄하고도 놀라운 대회를 펼쳤음에도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범불교도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8월 27일로 부족하다면 10월 3일에도 모이고 그 이후에도 모여야 한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 금오 대선사

"금오는 하늘 끝까지 날아간다" … 만공 스님 맥 이어

"아무리 뿌리를 찾아보아도 역시 없고 없을 뿐이로다"

1959년 8월로 생각된다. 오대산 선원을 나와 강릉포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주문진 일대를 돌면서 탁발, 양양 낙산사로 갔다. 낙산에는 며칠전 총무원장을 그만두고 잠깐 들리셨다는 금오 대화상이 앉아 계셨다.

"어디서 왔느냐?"

"상원사에서 왔습니다."

"한 소식 얻었느냐?"

"천산은 반야봉이고, 만강은 보리로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더냐?"

"비로자나 부처님은 처소가 없으나,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일으킵니다."

"장하다. 나이 어린 사람이 선(禪)을 하다니. 나는 선자가 든 말만 하는 사람도 내 할아버지처럼 받든다."

하시고, 원주를 불러 따로 방 하나를 주라 하셨다. 당시 낙산사는 미군부대 사람들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쟁고아들이 많았는데, 법당일 보는 주지스님 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새벽예불부터 도량석을 한 후 종성을 하고 예불을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옛 가람의 풍습이 되돌아온 것 같다고 좋아하였다. 이튿날 홍련암에서 기도하기를 청하니 홍련암 주지는 영혈사 주지가 겸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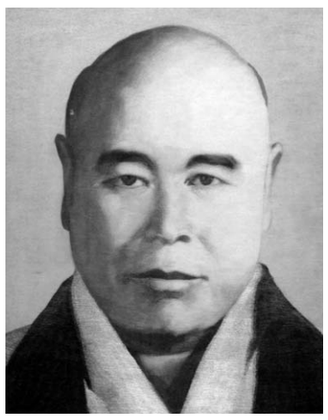
3·7일 동안 기도하고 오니 설악산 신흥사에 들렸다 다시 왔다는 스님께서 물었다.

"관세음보살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능엄경> 25원통(圓通)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능엄경>이야말로 차돌능엄이지. 이리 씹어도 안 되고, 저리 씹어도 안 되고, 늙은 이빨이 다 빠진 뒤에야 비로소 그 돌 맛을 알게 되지."

"묘한 마음은 애초부터 움직이지 아니 했는데, 아난존자가 억겁의 전도상 때문에 마등가의 사랑에 걸려 하마터면 생사에 빠질뻔한 것을 부처님께서 7처징심(七處徵心: 일곱 곳에서 마음을 찾는다)으로 건져 주시니 억겁의 전도상이 일시에 무상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장하구먼. 자네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저 불쌍한 애들을 보살펴주게. 나는 내일 아침 서울로 갔다가 수원 용주사로 떠나게 되니, 혹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세."

하고 이별하였다.

그 스님은 큰 부자인 장자처럼 풍채가 든든하고 솔직 담박하게 보여 행정승 같지는 않았다. 듣건데 스님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성은 동래 정씨이고, 이름은 태선이었다 한다. 어머니 조씨가 꿈에 학을 보고 낳았다는데, 아버지 용보씨는 서숙에서 공부를 시키면서도, "아무래도 저 놈은 내 자식 같지가 않아"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16세 때 마하연 도암 선사에게 출가하여 범어사에서 계를 받고, 월정사, 통도사 보광선원을 거쳐 예산 보덕사 보월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건당식도 하기 전에 법사스님께서 입적하자 노스님이신 만공 대선사께서 대신 건당식을 해주었다.

"덕숭산 아래 무늬 없는 도장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보월은 계수나무에서 내리고 금오는 하늘 끝까지 날아간다."

이것이 만공 스님의 전법게(傳法偈)이다. 그 뒤 태안 안면도 백사장에서 몇 명의 수좌들과 함께 걸사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들어가 계신 수월 스님을 찾아 1년 동안 시봉하였다.

1935년 김천 직지사 조실을 시작으로 안변 석왕사, 도봉산 망월사, 지리산 칠불선원, 서울 선학원 조실·회주를 지내면서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월산, 범행, 월남, 판성, 혜정, 월탄 등 눈푸른 납자 50여 명을 배출시키고 조계종 부종정, 봉은사 주지, 구례 화엄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1928년 보월 스님께 바친 "투출시방계(透出十方界; 시방세계를 철저히 꿰뚫으니) 무무무역무(無無無亦無; 없음과 없음의 없음이 또한 없구나) 개개지차이(個個只此爾; 낱낱이 모두 그러하기에) 멱본역무무(覓本亦無無; 아무리 뿌리를 찾아보아도 역시 없고 없을 뿐이로다)"는 스님의 오도송이다.

그물을 벗어난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태평양, 대서양 그 어느 곳에 가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전수 – 치유
- 신침전문,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통항아리 불부항전문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 H.P. 010-3056-3315
서울지사 (9월 개원예정)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
트럼프월드 102동 510호 ☎ 02)795-7075
본부장 – 현오 합장 010-3056-3315
지사장 – 혜진 합장 010-7508-3315
실 장 – 혜성 합장 010-7509-3315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 월요일은 쉽니다.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현장속으로


'새생명학교' 어린이들의 식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영봉 스님.

"1만원이면 한 어린이 한 달 생활 충분"

영봉 스님 특별기고
미얀마 난민촌을 다녀와서

1만원의 가치. 1만원이 어린이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고 입고 공부하는 데 충분한 돈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어림없는 얘기다. 그러나 태국 국경지역에서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1만원은 생계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군부독재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태국 국경지역으로 탈출해 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그리 두텁지 않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지원의 길도 개척되지 않은 곳이다.

태국의 국경지역 미얀마 난민들의 고단한 삶 속으로 영봉 스님이 다녀왔다. 본지 678호 봉축특집 기획 '토굴에서 만난 스님'에 소개됐던 영봉 스님은 올 초파일 토굴에 들어온 '시주금' 400여 만 원을 그곳 헐벗은 어린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달했다.

영봉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에게 미얀마 난민촌을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그들을 돕기 위한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발원했다. 〈편집자 주〉



지난 초파일은 몹시 힘들었다. 본의 아니게 '현대불교'에 나의 토굴생활이 공개되며 여기저기서 질책의 말들을 들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질타는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됐고 그 힘은 나를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작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히말라야를 다니며 들었던 미얀마 난민들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묻었던 추억처럼 떠올리게 된 것이다. 토굴에서 초파일을 보내고 나니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큼의 정재(淨財)가 손에 쥐어졌다.

30만 명 난민의 비참한 삶

7월 12일 한국을 떠나 미얀마 난민촌을 향했다. 태국 방콕까지 항공기를 타고 가서 방콕에서 버스로 8시간을 달려 국경지역인 매솟(Measot)에 도착했다. 매솟은 30여 만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고 있는 태국의 국경지역 가운데 한 도시다. 영화 '람보4'의 시작 부분에 엄청난 폭격이 가해지는 도시가 바로 매솟이다. 군부독재를 피해 죽음을 각오하고 고국을 탈출한 미얀마 난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와 마을들은 태국 국경지역에 길게 분포되어 있다.

나는 매솟 인근 난민촌과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노포(Noa Poe) 캠프까지 두루 찾아가 현황을 살폈다. 매솟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우 틴앙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을 만나 현지에 대한 상황을 들었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한국의 조계종 승려인 나는 정치나 이념적인 목적이 전혀 없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방문이란 것을 잘 알았으므로 그들도 거리낌 없이 나를 도왔고 반겼다. 때문에 나는 비교적 자유롭게 난민들의 캠프를 찾아다닐 수 있었다. 국경지역이고 난민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탓에 검문이 심했다.

목장 같은 학교…한끼 식사에 50원

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곳은 매솟에 있는 '새 생명 학교(New blood school)'였다. 전교생이 168명인데 모두 학교에서 생활했다. 그 가운데 58명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영양실조를 간신히 면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 급식에 의존하며 변변한 이불도 신발도 없이 살아내는 아이들. 인근 숲에서 야채를 채취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민주 독립 운동과 독재정권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새생명학교는 목장처럼 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울타리 밖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학교가 차지한 땅도 태국인 소유라서 월세를 내야한다. 마당가에는 낡고 초라한 대나무통 시소와 미끄럼틀이 있고 학교 건물은 우리나라 농촌의 빈집보다 허술했다. 그래도 아이들의 눈망울은 가을하늘 같고 목소리는 싱싱하고 투명했다. 매일 아침 합장을 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는 한국 돈으로 5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 공기 쯤 되어 보이는 밥에 국물 한 국자를 끼얹어 주는 것이 전부였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한 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전체 음식량에 비해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었다. 식사뿐이겠는가. 책과 공책은 물론 학용품들도 절대 부족이었다. "책과 학용품보다 현실적으로 급한 것은 콩기름이다"는 학교장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야채를 볶아 주기 위한 콩기름이 학용품보다 절실하다니 말이다. 맨손으로 밥을 먹고 맨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매년 한 두 차례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그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와 교육이 '미래'

벌레나 습기를 피해 누각 형식으로 지은 학교 건물은 대나무를 사용했는데 4년이면 다시 지어야한다고 했다. 대나무 잎을 엮어 얹은 지붕은 2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학교 건물 신축에는 한국 돈으로 4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새생명학교는 대부분이 지원에 의해 유지된다. 야채를 지원하는 몇몇 학부모와 건물 보수에 동참하는 난민들, 자원봉사로 교사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학교를 지탱하는 주축이다. 물론 학교가 미얀마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에게 향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금해 민주화 기금으로 10%를 내고 2만여 명의 난민이 사는 노포 캠프의 교육센터와 매솟의 새생명학교, 불교 중학교의 교육 지원금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세상과 단절되다시피 한 미얀마 난민들의 마을엔 스님들도 상당수 들어 와 있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다가 많은 도반을 잃고 탈출해 온 스님들은 난민촌에서 정신적인 힘이다. 엉성하지만 마을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난민촌 그곳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민주화 된 고국에 웃으며 돌아가는 꿈이 있다.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인이 도와야 한다. 군부독재를 경험한 한국의 불자라면 더욱 그들을 도와야 한다. 지구상에 그들의 불행이 있는 한 극락정토는 없을 것이다.

자비의 손길 모아 그들에게 희망을

매솟을 다녀와서 몇몇 불자들에게 그곳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자"고 해 후원계좌를 만들었다. 부모에게 그곳 얘기를 전해들은 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다"며 돈을 모아서 보내왔다. 그 아이가 내게 또 다른 힘을 주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 기고문을 쓰게 됐고 후원금 모금도 공개적으로 하고자 한다. 자비의 손길을 모아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불사에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23-703846 예금주 임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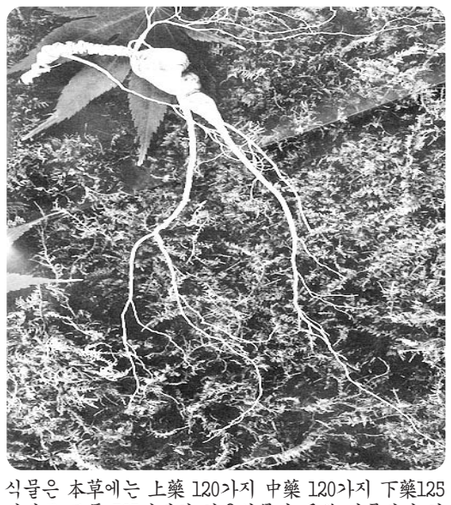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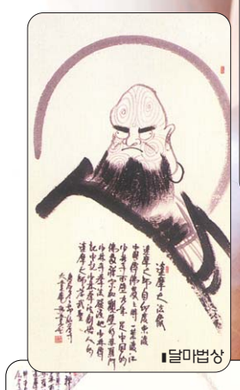
2008 한국불교박람회
화응당 묘각스님 달마 展


화응당 석묘각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 불화 단청 만봉스님 사사
- 시경 박익준 선생 사사
-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 동남아시아 7개국 순회전시
- 불우 어린이 가장 돕기 및 독거노인 돕기 20여회 전시
- BBS불교방송 초대전시
- MBC 방송 초대전시



2008년 불교박람회를 기념하여
묘각스님의 달마 전시회를 봉행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마법상


취선달마

일_시 : 2008년 9월 5일 - 8일 (불교박람회 기간)
장_소 : 일산 킨텍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031)810-8114
주_최 : 해동불교임제종
후_원 :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28-4번지 2층 회응당 포교원
061)743-1227 / 010-5894-0900

일주문



제1회 불광장학금 2000만원 수여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8월 24일 서울 불광사에서 제1회 불광장학회 장학금 2000만원을 학생 15명에게 수여했다.



대구시청유마회 창립20돌 기념법회
대구 도림사 주지 원오 스님은 8월 29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모시고 대구시청 유마회(회장 권태형)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부 사회국장 임명
재경 스님은 8월 28일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송광사, 해인사 선원에서 정진해왔다.



태국 국립대 명예박사학위 받아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운문승가대학장)은 9월 7일 운문사에서 태국 국립대학교 총장 담마코사잔 스님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진각종 위덕대 제4대 총장 취임식
진각종립 위덕대 배도순 총장은 8월 28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배 총장은 8월 1일자로 제4대 총장에 선임됐다.



제2차 미얀마돕기 의류발송
윤천수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9월 5일 중앙신도회관에서 제2차 미얀마돕기 의류발송을 진행한다. (02)733-7277

문광부 종무실장에 권경상씨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권경상(52·**사진**) 문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월 21일자로 임명됐다.

권경상 신임 종무실장은 1957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대광고와 한국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권 실장은 문화관광부 공보관, 관광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을 거쳐 3월부터 문광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김성우 기자**

동국대 최규철·허천택 신임이사 선출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8월 26일 제 241회 이사회를 열고 2인의 이사를 선임했다. 故 유광진 이사 후임으로 최규철 前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사진 왼쪽**), 이재창 이사 후임으로 허천택 前 서울캠퍼스 부총장(**사진 오른쪽**)이 선출됐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없는 연합회 만들터"

전국여교수련 제10대 회장 정경연 교수 인터뷰



전국 여교수 6000여명을 대표하는 전국여교수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불자인 정경연 교수(홍익대·**사진**)가 선출됐다. 정 교수는 1980년부터 28년간 홍익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에 '장갑작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예술가다.

"말 못하는 벙어리의 수화, 노동자의 거친 손, 황제의 손까지 제 장갑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장갑 같은 평등을 전국여교수연합회에서 이루겠습니다."

전국여교수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정 교수는 뜻밖에 종교간 화합을 강조 했다.

"전국여교수연합회 공문마다 성경구절이 들어가고, 임원진은 개신교 일색이었습니다. 6월 20일 열린 전국여교수연합회 창립 10주년기념 행사에 개신교 목사가 축사할 정도였지요."

대대로 불연(佛緣) 깊던 집안에서 자라 前 회장의 종교편향을 엷애고자 기꺼이 회장직에 나섰다.

"외조부가 제헌의원과 초대 사회부장관을 지내며 <금강경>에 달통했던 우촌 전진한 거사, 어머니는 경봉 스님 유발상좌였던 성법행 보살입니다."

성법행 보살은 前 숙대 동창회장을 지낸 故 전금주 여사다. 정교수의 부친은 정무장관 등을 역임했던 정재철 前 동국대 동창회장이다.

미국 유학 중에 불교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정 교수는 귀국 후 능인선원, 조계사 불교대학 등에서 불교를 배웠다. 성철 · 혜암 스님 등 여러 선지식을 친견하며 관음행(觀音行)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관음만으로도 벅찬데 행까지 붙은 법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에게 오원(奧元)이라는 법명도 받았지요. 60세가 넘으면 큰스님께 받은 관음행을 사용할 겁니다. 어린이 포교활동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활동을 하려고요. 이름값 해야죠."

방학마다 용맹정진한다는 정경연 교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등 불교계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왔다. 1990년 국내 중견 여성작가로는 처음 석주미술상을 수상한 정 교수는 1994년부터 10여년간 (사)텍스타일디자인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미술계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경연 회장은 "지역별 · 대학별 · 전공별 안배로 차별 없이 전국여교수연합회를 운영하겠다"며, "특히 임기 1년동안 '사랑'과 '화합'을 화두로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간화선 배우러 왔어요"

UN 총회의장 부인 라조바 키림 봉은사서 템플스테이



"간화선 체험하러 왔어요."

제62차 UN 총회의장 스르잔 케림 총회의장 부인 스르잔 라조바 케림 여사(50·마케도니아·**사진**)가 한국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8월 25일 봉은사를 찾았다. 이번 케림 여사 방문은 국무총리 초청 UN총회의장 부부 방한으로 이뤄졌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은 이명박 대통령 예방, 고려대 강연회, 판문점 방문 등 바쁜 일정에도 선체험에 대한 여사의 열의가 반영된 것.

이날 케림 여사는 봉은사 교육국장 맥산 스님과 함께 경내 대웅전, 미륵대불 등을 둘러본 후 봉은선원 수련원에서 사찰을 찾은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접빈다례'를 체험하며 '끽다(喫茶)'의 의미와 조주 선사 공안 등 차와 관련된 선문답을 들었다.

케림 여사는 "베트남 불교 등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를 아들과 함께 8년 전부터 해왔다. 위빠사나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아 선(Ze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방한을 계기로 간화선을 체험해 보고자 봉은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매년 10일씩 수행처에서 위빠사나를 한다는 라조바 여사는 봉은사 교육국장 맥산 스님이 "한국 스님들은 하안거 · 동안거 90일씩 180일을 한다"는 말에 놀라며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보고 싶다"고 관심을 표했다.

곧 이어 참선시간에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화두를 받은 라조바 여사는 "부모미생전 내 몸은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논리적인 답을 떠나 계속 의심을 갖고 궁구해 보겠다"며 "화두를 처음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께서 지도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참선 후 채식으로 짜여진 한국 고유의 전통사찰 음식들로 식사를 마친 여사는 "담백한 사찰음식이 매우 맛있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만나 차담으로 일정을 마무리한 케림 여사는 "1200여년의 전통을 지닌 사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중시하는 한국불교를 맛볼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케림 여사는 화계사 등 한국사찰을 더 둘러본 후 8월 26일 판문점 방문, 대통령 예방으로 방한일정을 마쳤다. **노덕현 기자**

일본문화원 초청 '영산재' 성료한 해사 스님



일본에서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를 성료하고 귀국한 해사 스님(옥천법음대학 작법반 교수·**사진**)을 8월 28일 만났다. 일본 오사카문화원 초청으로 오사카한국문화원 대강당에서 봉행된 영산재는 600여 전 좌석이 매진사례를 이뤘다. 영산재범음단(단장 일운) 30명이 22 · 23일 무대에 올랐으며 '식당작법'의 핵심을 엄선해 기존 구성의 변화를 모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스님은 영산재야말로 불교의식을 넘어 한국문화를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웅장한 범패소리와 바라춤이 일본인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것 같다. 법석이 무대 위로 이동됐을 뿐 진심의 마음이 전해져 깊은 여운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소감을 전했다.

옥천범음대학에서 인재양성에 매진중인 스님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문화예술학을 전공하는 학인이다. 스님이 강조하는 '충실한 기본'의 초심은 참다운 공양구인 몸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재현하는 자부심으로 통한다. 영산재는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다. **가연숙 기자**

종단진흥총연합회 LG데이콤과 협정체결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회장 회암)와 LG데이콤은 7월 14일 '불교정보 사업 활성화 협정'을 체결하고 전국 8000여개 사찰과 신도들에게 인터넷집전화 'myLG070'을 제공하기로 했다. (017)390-0909

천태종, 기업은행 광고후원금 2억원 수탁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8월 22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기업은행 광고후원금 2억원을 전달받았다. 천태종 하계 간부교육 회향식을 겸해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정산 스님과 유희태 기업은행 부행장 외 스님 6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예비군승후보생 하계교육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8월 26-29일 가평 수기사 연호사에서 예비군승 하계교육을 개최했다. 정기하계교육 외에 각종 의식실수나 설법실수 등이 진행된 교육에는 예비군승 44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도선사, 갓바위서 '종교차별' 규탄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8월 23일 '관봉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부처님)을 찾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을 비판하는 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선묵 스님,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 최병국 경산시장을 비롯해 도선사 신도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신흥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성료



속초 신흥사(주지 무산)는 '제3회 신흥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8월 15~17일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지혜염주만들기, 촛불명상, 찬불가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성우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9월 **8일** 월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 기 사 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미군의 종교 환경 '군법사'가 지킨다

해외불교칼럼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라 울부짖는 영상 등이 지구촌을 나돌며 우리 모두 애써 일군 '선진한국'을 순식간에 미개인의 땅으로 되돌려 놨다. 그러더니 이번엔 서구인들조차 수치의 역사로 여겨 감추고픈 '십자군전쟁' 마저 들먹이는 시대착오적 광신유종들이 마치 '종교내란'이라도 벌리자는 양 거품을 문다. 종교인의 탈을 쓴 일부 '영혼장사치'들의 저열한 수작에 알게 모르게 끌려 다니는 어질고 착한 분들이 그저 안쓰럽고 답답하던 얼마 전 가슴이 좀 트이는 소식에 접했다.

미 합중국군 최초로 종군법사에 임관된 해군중위인 지네트 그레이시 신 비구니스님이 쓴 글로서 8월 1일자 미국의 <군 불자 승가, Buddhist Military Sangha>에 게재됐다. 이 글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선 모든 종교들을 어찌 대하는지, 또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제도적 보장을 받는지 이 땅의 일부 야만 중생들이 부디 배울 수 있기 바란다. 또한 미국이민을 예정하는 불자님과 현지교포 청소년불자님들의 진로설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다음은 '미합중국군의 불교 군법사 지원자격(Requirements to Become a Buddhist Chaplain in the US Armed Forces)'이란 제목의 글이다.

수계한 불자가 군법사를 지원하는 경우, 불교학 관련 학위가 최우선 선발조건이다. 학사 및 석사학위는 미 합중국군 전체 군종복무원의 필수자격요건이다. 법사 지원자는 개별선택에 따라 공인된 종단에서 수계, 정식승려자격을 지녀야 한다. 미 합중국군군대나 미국불교단(BCA)은 계를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수계는 각자 선택사항이며 2년 이상의 수행경력자가 최우선 선발대상이다. '미국불교단'은 종정이 발급하는 DD2088 서식에 의거, 군법사의 신분을 보증하는 단일 기구다. 동 발급은 정통 불교교단에서의 수계 및 수행경력 입증, 일반학력 검증 및 구두면접으로 결정한다.



최초의 미 국방성 법사인 지네트 그레이시 신 해군중위의 복무서약 서명식. 해군군종단장 루이스 라세일로 소장(왼쪽)과 해군예비함대 사령관 존 카튼 중장(오른쪽)의 입회, 2004년 7월 22일 미 국방성 펜타곤.

육해공군 공히 장교의 제한연령은 임관 당시 사십대 초반이나, 법사의 경우는 모병관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 지원자는 심리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임관 이후에도 매년 구보, 팔굽혀펴기 등 체력검증을 필해야 한다. 또한 해외주둔, 함상근무 등 특수 다양한 복무여건에 적응할 심리 및 신체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전체 군종복무원은 국방성의 '종교조정환경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조정환경지침이란 군종복무원이 범종교적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종교간 차별 및 개종의 시도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특히, 군법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다' 함은 불교를 비롯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의 장사병에 적시 적절한 상담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뜻한다. 미군 내에는 기독교도 이외 상당수의 위카 신봉자(Wiccan, 주; 유럽의 기독교 이전의 종교임을 주장, 현재 영어문화권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는 신흥종교 또는 종교운동) 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타종교인의 경우, 불교전통과 군법사의 개인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군법사는 여하한 경우에도 전체 장사병에 자유로운 신앙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군법사도 타종교에 다른 견해는 지닐 수 있으나 장사병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다. 군종복무는 군대환경 내의 종교상호적 활동이다. 여기서 군대환경이란 군내 문화와 전우애 등을 뜻한다.

군법사는 미합중국군의 장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상기요건은 미국 국방성의 규정이다. 따라서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전체 군종복무 지원자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요건에 부합되고 군종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육해공군의 각 사이트를 통해 모병관에 문의한다.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이며 현재도 미 국방성은 군법사들을 후속교육 배치 중이다. 그런데 미국은 왜 불교, 이슬람, 유대교까지 군대 안으로 불러들이는 걸까? 설마 미합중국 군대가 예수천당에서 불신지옥으로 바뀌는 건 아닐 터, 이러다 자칫 이 땅의 광신패거리들이 주한미군부대 앞으로 몰려가 '사탄아, 물러가라!' 울부짖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그나저나 단아하고 여법하신 미군법사님들을 우리나라에서 뵐 날이 머잖은 듯하다.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Navy.Mil, ABN

지네트 그레이시 신은?

미 해병대 4년 복무(1988~1992) 후 명예제대,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철학 및 종교 학사 취득. 버클리의 GTU에서 불교학으로 석사 취득, 2003년 일본 교토의 본원사에서 수계, 2004년 7월 군 법사 임관 후 현역복무 및 국제사이버전 법 활동 중.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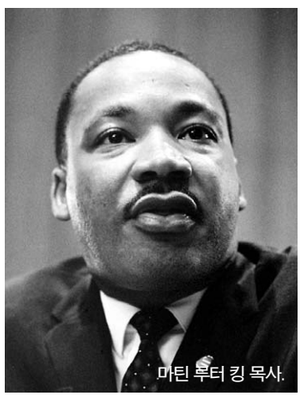
앨리스 워커 ❼

'중도'는 흑인 인권운동의 힘

마틴 루터 킹, 틱낫한 노벨상 후보 추천

"평화 비폭력 실천은 인간애의 기념비"

소설 <컬러 퍼플>을 비롯해 시, 수필 등에 걸쳐 다양한 문학적 천재성을 발휘하는 앨리스 워커 보살이 언제부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1960년대에 대학생으로 참여했던 흑인민권운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민권운동은 불교의 비폭력철학과 간디의 무저항사상이 그 바탕이다. 그녀는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무자비한 핍박이 흑인들에게 가해지던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말을 통해 미국흑인들에게 불교가 끼친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보기로 하자.



마틴 루터 킹 목사.

"민권운동 당시 제가 어느 흑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봐도 예외 없이 일치된 견해가 하나 있었어요. 즉, 흑인교회가 지닌 일촉즉발의 돌파력, 그리고 극단적 행동을 피하며 중도를 걷는 불교의 내재된 힘, 그 두 가지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불교사상에서 비폭력운동의 개념을 수용한 사실, 또 그분이 살해되기 바로 전 해에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7년 1월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한번 읽어보자.

"저는 1964년 노벨평화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로서 1967년도 동 평화상의 수상자로 틱낫한이란 이름을 기쁘게 제안합니다. 저는 베트남 출신의 이 스님보다 더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을 지닌 분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와 비폭력의 길잡이이신 이 분은 전 세계의 안전과 바른 삶을 해치는 전쟁에 시달리는 동포들로부터 가혹하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벨평화상을 틱낫한 스님에게 수여하는 사실 자체가 가장 너그러운 평화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선량한 의인(義人)들이 증오와 파괴의 수렁에서 분쟁의 본질을 추스를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음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 속에 깃든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르침을 새로 일깨우며 정의와 화해의 새 질서를 되살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틱낫한 스님을 벗이라 부릅니다. 그는 겸허하고 독실한 믿음을 지닌 성자로서 방대하고 심오한 학술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여러 서적을 저술하고 지순하고 인간애가 충만한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분은 사이공에 '반 하느' 불교대학의 설립을 돕고 종교철학교수로 후학을 지도하며 사회학연구소를 이끄셨습니다. 또한 유수 불교주간지 '티엔 미'의 편집장을 지내며 베트남청소년의 재활훈련기구인 '청년사회봉사단'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정부로부터 입국금지조치를 당한 그가 만일 본인의 소원대로 귀국을 하면 극도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에게 평화를 옹호하자고 제안한 그는 가혹한 망명의 희생자입니다. 외국세력과 타락한 부유층의 착취로 점철된 베트남의 역사는 지금도 압제와 궁핍과 더불어 현대전의 공포와 고통으로 이어져 옵니다. 지금도 그는 세계 각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 지식인들에게 이 악몽을 벗어날 자신의 방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화안이 적용된다면 이는 범종교 파주의, 지구촌 형제애, 인간애를 이뤄낼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귀 위원회가 1967년 노벨평화상의 영광으로 그의 바른 이념을 북돋아 주시길 바라며 삼가 추천하는바 입니다."

이런 글은 아무나 쓸 수 없다. 참된 신앙의 멋을 지니고 복된 삶을 살고가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새삼 돋보이는 더없이 아름다운 편지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ich box do you want?

어느 상자를 고를 테야?



A Christian missionary (pastor) brings two boxes before little Kids. He says one belongs to Jesus and the other to Buddha. And they are asked to select any box of their choice. The Buddhist kids select the box of Buddha. But they found it empty. Now he tells them to select the box of Jesus. It is filled with so many things. Then the pastor smiles very kindly, "See how Jesus loves you!" This is a true story, 'Which box do you want?' revealed over 'unethical conversions' by a renowned broadcaster Eric Fernando, A.C.M.A. at a 3-hour TV programme of TNL, Sri Lanka.

한 기독교 선교목사가 꼬마들 앞에 두 개의 상자를 갖다 놓고서 그 중 하나는 예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붓다의 것이라 말했다. 그리곤 갖고 싶은 걸 고르라 하자 불자인 꼬마들은 당연히 붓다라 표시된 상자를 골랐다. 그런데 그 속은 텅 비어있었다. 이제 그는 그 애들에게 예수라 표시된 상자를 고르라고 말했다. 그 속엔 여러 가지 물건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가 한껏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젠 예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지?" '어느 상자를 고를 테야?'란 제목의 이 얘기는 '비윤리적 개종'에 관한 스리랑카 TNL 텔레비전의 3시간 집중토론 중 저명방송인 에릭 페르난도씨가 밝힌 실화다.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유태계 불자 대열에 합류

사라 제시카 파커, 불서 탐독

8월 19일자 피알 인사이드 지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스타 사라 제시카 파커가 주부(Jew-Bu), 즉 유태계 불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 보도했다. 최근 현재 2개의 케이블 쇼의 제작과 결혼생활의 난조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녀는 아일랜드의 가족 별장에서 유명 불자이자 학자인 실비아 부어 스타인 보살이 저술한 불교입문서 겸 스테디셀러 <어머, 당신이 불자세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잔 브레이엄 스님의 <이 한 트럭의 똥을 누가 주문했을꼬?>, 불교저서 베스트셀러 작가 수리아 다스 스님의 <지혜의 말씀> 등에 심취하며 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할리우드의 주부로 골디 혼, 케이트 허드슨, 기네스 팰트로우, 우피 골드버그 등이 있다. 출처: BCT, PR Inside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279,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법 화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화 엄 경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모집인원 : 약간명 ◆학 기 : 2학기
◆개강일시 : 2008년 9월 22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면목역, 상봉역)
◆전 화 : 02)496-3952~3



필요한 분에게 여래선, 금강경, 대승기신론 통신강의 가능

강사 마정스님
가야산 해인사 강맥 전수
금강산 장안사 강맥 전수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만해 스님의 심우장 성역화 해야"

동방대학원대 백원기 교수, '동방논집'서 주장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마에 소실된 후 문화재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총체적 점검을 통해 문화재 정체성 확립, 체계적 보존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때,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일본 강점에 맞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실천했던 만해 스님의 심우장(서울 성북동 소재 서울기념물 제7호)을 성역화해 민족 주체성 회복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백원기 교수(동방대학원대·**사진**)는 <동방논집> 제2집에 기고한 '심우장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만해 스님 연구가 문학적 측면에 집중됐다"고 전제하고, "만해 스님이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는 것이 싫어 북향으로 집을 지어 생을 마감한 심우장을 민족문화 창달의 공간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장(尋牛莊)은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치기 위한 집'이란 뜻이다. 선학원 벽산 김적음 스님이 초당을 지으려 마련한 북장골 송림(松林) 중 52평에 후학동지들이 52평을 더해 100여평 공간에 지어졌다. 만해 스님은 "조선 땅덩어리가 하나의 감옥인데 어떻게 불 땐 방에서 편히 살겠느냐"며 심우장 냉돌 위에서 입적했다.

백 교수는 "북향집 심우장 차가운 방에서 꼿꼿하게 앉아 지낸 만해에게 '저울추'라는 별명도 있었다. 차디 찬 냉돌에 앉아 혁명과 선의 세계를 끝없이 더듬는 저울추"라고 설명했다.

백원기 교수는 "만해 스님이 떠난 지 64년 된 지금도 성북동 심우장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 동안 자유와 평등을 대의로 실천한 만해가 1933~1944년 말년을 보낸 민족자존의 정체성을 간직한 공간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보존돼야할 심우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우장 건너편에 일본대사관저가 들어오자 만해 스님 자손인 한영숙씨가 "꼴 보기 싫다"며 이사갔다. 지금은 1999년 서울시가 심우장을 매입해 성북구청 관리인이 거주 중이다.

백 교수는 "주변 고려 없이 세워진 기념비와 시멘트 건물, 찢어진 비닐장판 · 탁구대와 삽 등이 널부러져 멸실 · 훼손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시간조차 일정치 않아 방문했던 시민들이 닫힌 문틈 사이로 보이는 흉물스런 건물만 보고 되돌아서는 것도 예사고, 경보장비 및 방화시스템 없이 소화기 몇 개가 전부"라 지적했다.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학교 교수.

백원기 교수는 2007년 12월경 만난 성북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자체 의원들이 가시적 공사를 통한 주민 시선끌기에 집중할 뿐, 문화재 관련 예산 배정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2005년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맞게 '심우장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백 교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우장 관리운영과 보존을 위해 동방대학원대 총장, 성북구청장, 성북문화원장 등이 모여 '심우장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동방대학원대가 만해 스님과 심우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북구 등이 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자는 내용이다.


심우장(서울기념물 제7호) 모습. 동방대학원대 백원기 교수는 방치된 심우장을 성역화하자는 구체적 안을 최초로 제시했다.

백원기 교수는 ▲심우장 주변 정비 ▲심우장 내 만해 흉상 및 시비 건립 ▲만해 추모 문화행사 개최 ▲심우장 관련 학술대회 개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심우장 홍보 ▲인근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문화재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옛 것을 찾아 보존하고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의미로 활용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문화창달의 중요한 요소"라며, "심우장 성역화 사업과 함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방논집> 제2집에는 주명철 · 설기문 · 천수정 교수 등 동방대학원대 교수들의 논문이 게재됐다.

주명철 교수는 '인도 유신론 철학의 삼매와 해탈'에서 유신론적이며 타력적 전통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는 라마누자 사상에서 발견되는 삼매와 해탈을 자력적 전통과 비교했다.

설기문 교수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에 입각한 NLP(신경-언어 프로그래밍: Neuro-Linguistic Programming)을 태교프로그램에 적용한 'NLP에 기반한 태교프로그램의 개발'을 발표했다.

천수정 교수는 '노인의 운동참여 동기와 여가만족 및 건강만족의 관계'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한 표본조사를 통해 운동참여 동기 중 외적 동기가 건강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결과를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東大 2008 학위 수여식 불교학 박사 논문 풍성


선심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지숙씨.

8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전체 박사학위 논문 70여 편 중 불교학과 · 인도철학과 · 선학과 박사학위 논문이 7편을 차지했다.

불교학과에서는 원소 스님이 '퇴옹 성철 연구', 김영일씨가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임상희씨가 '이통현의 화엄사상 연구', 양정연씨가 '<보살정도> 연구'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도철학과에서는 심재관씨가 '전투신 스깐다(Skanda) 탄생신화의 기원과 발전', 김경준씨가 '상키야 철학에서 뿌루샤(Purusa)의 향수와 독존'으로, 선학과에서는 박지숙(**사진**)씨가 '선심리 치유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박씨의 논문은 선과 심리치료를 연계한 연구에서 구체적 방법론과 임상데이타 자료를 제시한 논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학계에서는 대체의학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선심리치료에 합리성과 보편성, 대중성을 부여한 연구로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양양 낙산사·김제 금산사 사적지정 예고

사찰구역 전체로는 처음

관동팔경 중 하나인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와 미륵신앙 본산으로 법맥을 이어온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사찰구역 전체로는 처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8월 22일 낙산사와 금산사의 사적 지정예고를 발표했다. 사적 지정된 양양 낙산사와 김제 금산사는 30일간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05년 산불로 낙산사 동종과 원통보전이 소실돼 복원사업이 한창인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 의상 대사에 의해 창건됐다. 지정예고한 '양양 낙산사 일원'에는 보물 제499호인 '낙산사 7층석탑'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인 '낙산사 홍예문' 등 6건의 지방지정문화재가 포함됐다.

백제시대에 창건해 통일신라시대 진표 율사가 중창한 고찰로 알려진 금산사는 고려시대에는 125동의 건물을 갖추기도 했다. 2007년 발굴조사에서 봉천원구인 왕사각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됐다. 임진왜란 때 뇌묵 대사 처영의 승병 본거지로 호국도량이었으나 정유재란 때 봉천원구와 광교원구가 전소돼 대사구 일부만 현재 남았다.

사적 지정구역 내에는 국보 제62호 미륵전과 고려시대 석조건축 및 조선후기의 목조건축 11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 · 관리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사적으로 지정된 양양 낙산사 전경.

제5차 월례발표회 개최 9월 5일 선학원 회의실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이하 선리연구원)은 9월 5일 안국동 선학원 회의실에서 제5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인환 스님(선리연구원 고문)을 좌장으로 인용민 연구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이 '효령대군 이보의 불사에 대하여'를, 김성연(동국대 박사과정)씨가 '일제 강점기 잡지 <불교>의 간행과 성격변화'를 발표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장례문화 국제세미나 9월 5일 東大 다향관서

한 · 일 불교학자들이 모여 장례문화에 관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 '공양에 관한 비교학회' 요청으로 열리는 행사는 9월 5일 2시부터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시작된다.

마츠오 겐지(일본, 야마가타 대학) 교수가 '일본 중세의 죽음과 불교', 이성운(동국대 박사과정)씨가 '몽산덕이의 <선교시식의문>의 수용과 변형',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유교 및 인도-힌두교에 비춰본 불교의 효문제'를 발표한다. (02)2260-3123

조동섭 기자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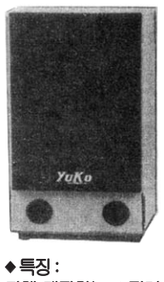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❾ 고성 건봉사









꽃으로 핀 건봉사(乾鳳寺)

적적했던 돌계단 위로 저녁 바람이 스치고...

고단했던 역사는 부처님 품에서 끝이 나고, 사라진 극락전은 하얀 들꽃으로 피어난다.

치열한 전쟁터였던 건봉사.
생사(生死)를 묻던 그 날의 총성은 이제 들리지 않고, 포화를 견디며 살아남은 불이문(不二門)이 부도(浮圖)처럼 서있다.
북녘에서 내려온 냇물이 골짜기를 적시고, 빗물 고인 돌확에는 노란 투드베키아가 수련처럼 피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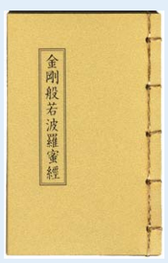
오랜 세월 아픈 시간을 보낸 건봉사는 한 동안 중생의 발길을 들일 수 없는 외로운 도량이었다.
전각들은 사라졌고 사중(四衆)은 머물 수 없었다.
매일 밤 부처님사리탑 위로는 차가운 달빛만이 다녀가고 홀로 남은 불이문은 총탄의 상처로 아파해야 했다.

불이문을 지나자 한 눈에 도량이 들어온다.
눈을 감으면 그 옛날의 대가람이 보일 것만 같다. 능파교도 보이고 대웅전도 보인다.
봉서루 옆 작은 배나무에는 달랑 배 하나가 열려서 찬바람을 기다리고, 후원 벽에 걸어둔 목탁위엔 빨간 고추잠자리가 앉아 있다.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
고단했던 역사는 끝이 나고 사라진 극락전 기단 위에는 하얀 개망초가 가득 피었다.
하얀 꽃잎 위로 하얀 나비가 날고 스님의 하얀 고무신이 극락전 꽃밭을 걷는다.
적적했던 돌계단 위로 저녁 바람이 스치고, 산신각 앞에 선 스님은 정성스레 합장을 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사 장 사 소 용 영 가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도심포교 성공모델’ 大관음사서 배우다

접근성·재정 확보·특화사업·지역신도 관리 및 모임 세분화 등 포교 노하우 전수

고즈넉한 산중 불사도 천년의 역사가 담긴 고찰도 아닌, 대구 도심 한복판에 13만 명의 신도가 모인 절이 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했을까?

전법도량(의장 심산·홍법사 주지)은 8월 25일 오후 3시 ‘도심포교의 성공모델’로 인정받는 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를 방문해 주지 우학 스님으로부터 16년 포교 노하우를 배웠다.

이날 답사에는 전법도량 의장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반산 스님을 비롯해 각 사찰의 임원진 신도까지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관음사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의 안내로 총 4개 동,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사찰 곳곳을 답사했다. 스님들은 실제 유골함이 모셔진 대웅전 건물 2층의 납골당과 5층의 부처님 진신사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서 주지 우학 스님과 대담을 나누며 포교노하우를 전수받는 전법도량 스님과 신도들.

12기가 모셔진 적멸보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납골당의 경우 몇 년간 보관되고 비용이 발생하는지, 법적 규제는 어떤지 등에 관해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신도들은 보통 “성불하세요”라고 하던 자신들의 인사법과 달리 “관세음보살”이라는 봉사자들의 색다른 인사법에 놀랐다. 또 경내 곳곳에 부착된 공지사항과 게시물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사진촬영 및 메모를 통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어 옥불보전 6층 국제회의실에서 주지 우학 스님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의 포교 방법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전법도량 회원들과 대담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의 성공비법으로 ▲도심 사찰로 접근이 용이 ▲‘108통장’ 등으로 꾸준한 재정 확보 ▲기도 도량 아닌 불교 교육대학으로 특화사업 ▲첨단 방송장비 통해 동시법회로 지역 신도 관리 ▲신도회 아닌 기수별 신도모임으로 일체 단결하는 방법 등에 관해 1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전법도량 의장 심산 스님은 회원들에게 “여기 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생각에 그치지 말고, 각자의 사찰에 돌아가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법도량은 2007년 10월 부산을 비롯해 경남, 울산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및 신행단체, 신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대 흐름에 맞는 열린 불교를 지향하기위해 만들어진 포교인의 모임이다. 그래서 부제도 ‘포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포교 및 사찰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분기별로 ‘도심포교의 성공모델’을 답사하고 있다.

전법도량은 10월 자선 바자회, 11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을 순례할 예정이다. 또 ‘바람직한 포교활동의 나아갈 길’에 관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처님 말씀 시대와 함께 하도록 노력”

지안 스님 전등강맥 전수법회…청원·도산·인해 스님 전수

백파 긍선 스님으로부터 처명(1858~1903), 정호(1870~1948), 용하(1892~1980), 해룡(1928~현재) 스님으로 내려오는 강맥이 청원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봉행됐다.

8월 29일 오전 1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는 청원(동국대 선학과 강사), 도산(송광사 강원 강사), 인해(수덕사 강원 강사) 스님이 지안 스님의 강맥을 전수받았다.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이번에 전강 받는 세 분의 스님들은 강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현직 강사스님들”이라며 “강원의 교과목인 내전을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불교가 현대의 지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동서양의 학문을 두루 섭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청원·도산·인해 스님이 지안 스님으로부터 전등강맥을 전수받았다.

전등강맥이란 부처님과 스승의 학적을 토대로 제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강(講)할 능력을 인정받은 강사에게 대중이 삼배를 올리고 스승은 그 강사에게 법호를 내린다.

이것으로 전강을 받은 제자는 개당설법을 통해 공인을 받게 된다.

박지원 기자

“염불, 자비광명 이르는 길”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 출판기념회

경남 양산 오룡산 깊은 계곡에서 홀로 수행 정진하는 정토원 정목 스님(사진)의 구도수필집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 출판기념법회가 열렸다.

8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동백홀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법회에는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을 비롯한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축하법문에서 “정목 스님은 오룡골에 정토의 꽃을 피운 스님”이라며 “앞으로도 정토의 대가로서 이 시대 정토 사상의 바른길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저자 정목 스님은 “이 자리를 열어준 진행요원 및 사회자, 축하공연 등 모두가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도량의 불자들”이라며 불법으로 맺은 인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 책에 담긴 염불수행은 자비광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대중불교의 혁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책은 수행자의 일상을 평범한 문체로 이야기하듯 엮어낸 책으로 제목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는 정토에는 남녀를 분별하는 경계와 사계절을 구분하는 경계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란 뜻이 담겨있다.

정목 스님은 현재 한국 정토학회 이사로 있으며 양산 오룡골 정토원에서 염불 정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전법에도 힘쓰고 있다. cafe.daum.net/amiapa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어린이대공원 앞 무료급식소

나눔의 삶 실천하는 진짜 부처님

“우리 어머님, 매일 오시더니 이제 혼자서도 척척이시네요. 된장도 셀프입니까?”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불자봉사단이 떴다.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아름다운사람들(대표 권경업)’이 마련한 급식소에 매주 불광사(주지 보광), 성암사(주지 응현), 삼광사(주지 영제),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 등 부산지역 신행단체들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 모임은 각자 요일을 정해 놓고 돌아가며 자체 준비한 정성스런 음식들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하루 평균 180여 명 정도 찾아오고 있다.



오늘의 메뉴는 청양고추로 맛을 낸 칼칼한 추어탕과 쌈밥. 어르신들은 추어탕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 쌉쌀한 아주 까리잎에 시골된장 넣어 쌈 싸먹느라 또 한 그릇해, 꼭 두 그릇씩 한 상 푸짐하게 드셨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곳에서 점심을 드신다는 김복순 할머니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이만큼 잘 대접해주겠어요. 식구도 이렇게는 못하는데…”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걸음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온 안상이 할아버지도 “그저께는 갈비탕도 맛있게 먹었고, 여름이라고 오이냉국, 콩국도 먹었고. 맛있어서 한동안 집밥 먹으면 여기 밥이 그립다니까. 허허…”라며 음식맛을 칭찬했다.

까다로운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19년이 넘는 세월을 한 결 같이 지켜온 보살님들에게 있었다. 막내 전득수(73) 할머니와 양라대(76), 안도순(81)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지, 원력으로 하는 거니까. 뭘 유별나게 신문에 실으려고 해”라는 손사래에 여유와 겸손이 배어들어 있다. 부처님의 자비행인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박경옥 실장은 이곳 200여명의 어르신들의 딸을 자청했다. “언젠가 고맙다고 찐감자 몇 알을 내미시던 할머니가 한동안 안보여서 걱정했는데 얼마 후에 그분 딸이 찾아와 돌아가셨단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마음이 찡했다”며 그 후 어르신들에게 친딸처럼 공양해야겠단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계모임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 다섯 사람이 김치 한 봉지씩만 갖고 와도 200분이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다”며 봉사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산 신행단체들 앞다퉈 급식 봉사 참여

이날 봉사에 참여한 민옥정(34)씨도 역시 신심 있는 불자다.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신청하게 됐다면서 “집에서도 하는 요리며 설거지지만 어르신들 대접하는 거라 더 예의바르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200여명의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떠나지 않고 급식소 주변 나무그늘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제법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벗삼아 오래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 기자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소리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쪽빛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겠지요.

“한동안 忍苦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불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_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 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안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어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름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매끈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고나 할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황의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밀한 하심을 띄운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02) 2198-5153

‘마을에서 길’ 찾은 종교 지도자들

남원 실상사서, 8월 21~23일 열려

정부의 개신교 편중 종교편향 시비가 사회적 이슈인 때,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대화마당을 열어 눈길을 끈다.

8월 21~23일 남원 실상사에서 ‘마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종교인 대화마당에는 불교에서는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원불교에서는 천지보은회가 참가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에서는 각각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와 서울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창조보전전국모임이 동참했다.

행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인 도법 스님의 ‘21세기의 희망, 공동체 왜 마을공동체인가-마을공동체의 철학과 세계관’을 시작으로 정규호 선임연구원(모심과살림연구소)의 ‘지역(마을)공동체와 사회(국가)시스템으로서 풀뿌리 거버넌스’, 김용우 지역농업위원장(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마을공동체와 자립 그리고 지역’, 염선업 회장(이시돌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의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해서’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펼쳐졌다.

종교 환경단체의 사례를 통한 미래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불교의 산내마을(왕영슬), 개신교의 민들레공동체(류기석), 천주교의 쌍호공동체(맹주형), 원불교의 살고자픈 영산마을(이태옥) 등 각 종교의 마을 공동체의 소개를 통해 참석자들은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올해 7회를 맞는 종교인 대화마당은 미래사회의 대안적 삶의 한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생명의 질서와 인간 삶의 모순 극복과 대안 마련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기 부처 낳아 키우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운사서 세대통합교육 열어

세계 최저인 국내 출산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때, 가족해체가 심각한 농촌불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교육 · 홍보사업이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8월 28일 지역불자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행복한 우리가족 공동체를 위한 세대통합교육’(이하 행복공동체교육)을 개최했다.



8월 2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선운사에서 ‘행복한우리가족 공동체를 위한 세대통합교육’을 개최했다.

행복공동체교육은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을 위해 마련된 저출산 문제 극복 프로그램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용권)가 연구개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건강한 출산 · 양육환경 조성사업’ 사업공모에 선정돼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처음 시행됐다.

행복공동체교육은 임혜영 교수(성균관대), 김일명 교수(동국대), 이영호 센터장(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최보아 연구원(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을 강사로 8시간 동안 열렸다.

임혜영 교수는 ‘저출산 사회! 세상이 변하다’를 주제로 한 교육에서 “저출산 · 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직접적으로는 젊은 불교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승가 구성원의 급격한 감소 등을 초래해 사찰의 경제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김일명 교수는 ‘부부함께 성장하기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에 있어 자녀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 출산, 자녀양육, 가정 내 성평등 구현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유도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1983년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했다”며, “지역사찰이 사회 현안 문제들에 대해 종단과 함께 직접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라 말했다.

한편 6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행복공동체교육’은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12개 사찰의 신청을 받아 운영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엔 종교편향 없어요”

무등산 풍경소리 6주년 기념음악회


8월 23일 광주 증심사에서 열린 무등산 풍경소리 6주년 기념 음악회에 가수 김두수씨가 노래하고 있다.

불교 · 천주교 · 기독교 · 원불교 등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몽려 종교와 예술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무등산 풍경소리(이사장 지장)는 8월 23일 무등산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김희택, 박원균, 임의진 목사 등 300여명의 종교인과 예술인, 광주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6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6년간 매월 1회씩 64회의 공연을 통해 종교지도자간 만남의 장을 이뤘던 행사는 6주년을 맞아 풍물패 굴림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포크가수 김두수의 노래, 샤토유키에와 수니의 노래공연에 이어 임의진 목사의 이야기 마당으로 진행됐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음악회는 사찰은 물론 교회와 성당에서도 열렸고, 광주생명의 숲,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참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소조상 ‘신비한 속살’ 드러내

예원예술대 문화재보존연구소 ‘감마선’ 촬영…두꺼운 나무 사용 특징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 지장전 소조상이 감마(γ)선 촬영으로 신비로운 속살을 드러냈다. 예원예술대 문화재보전연구소는 8월 14일 송광사 지장전 내 도명존자상과 시왕상 2구, 판관 1구, 동자상 1구, 인왕상 1구 등 지장전 좌우상과 시왕상 및 권속 30구에 감마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감마레이 촬영을 진행한 전경미 교수(예원예술대 문화재보존연구소)는 “기존 소조상에 대한 이해는 서양식으로 각목을 열십자로 세운 후 새끼줄이나 끈을 묶어 그 위에 흙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으나, 송광사 소조상은 상의 대부분을 두꺼운 통나무로 세우고 1~2cm 정도로 흙을 붙이고 그 위에 천을 대고 채색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각 상의 머리와 목, 목과 가슴, 팔복, 발목 부분과 두 손을 앞으로 해 합장하거나 지물을 가지고 있는 등 흙이 떨어지기 쉬운 곳에는 철핀을 제작해 꽂았다”며, “지난해 익산지역 숭림사 영원전 시왕상과 나한전 나한상, 심곡사의 시왕상을 촬영했던 문화재보존연구소 측은 송광사 상들은 두꺼운 통목재를 사용했으나, 익산지역 상들은 기본적으로 각목을 열십자로 세운 뒤 힘을 더 받는 곳에 각목을 2~3개 덧댄 형식이었다”고 분석했다.

전경미 교수는 “송광사는 금강문의 금강역사상, 천왕문의 사천왕상, 대웅전의 삼세불상, 나한전의 나한상 등 모든 불상이 소조로 제작된 ‘한국 소조상의 보물창고’”라며, “2004년 천왕문 사천왕상과 2006년 금강문 금강역사상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또는 감마레이 촬영을 하지 않아 중요한 자료들을 잃어버리고 사용된 안료와 섬유의 분석 또한 폐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촬영된 지장전 소조상 상태에 대해 전경미 교수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뒷쪽이나 접합 부분 등은 보수가 요구된다”며, “모든 소조상에 대한 경화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금산사 복지원 노인일거리마련센터

상자접기에서 볼펜조립까지…

노인일거리마련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노인 소득을 창출하는 금산사 복지원(대표 원행 · 금산사 주지) 노인일거리센터를 찾았다.

300평 남짓한 작업장에 들어서자 산더미 같이 쌓인 종이상자가 사업장 규모를 짐작케 한다.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전주시에 위치한 회사들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제작하는 일. BYC · 쌍방울 · 보디가드 등 속옷 전문제작회사의 속옷 상자접기를 비롯해, 수출용 볼펜 조립, 철끈 자르기, 유아복 가공 등 작업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수입도 늘었다.

이성강 센터장은 “전국 유통 메리야스 상자 2개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 달에 130만장, 일년에 1500만 장의 상자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섬유와 종이제조 등 경공업이 발달한 전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곳의 메리야스 상자 수요는 매우 높은데 이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하면서 지역적 요구와 맞아떨어진 덕택이다.

새로 시작한 주름등 만들기, 영가옷 만들기 등 불교용품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열쇠조립 작업도 전국에서 유일하다. 사찰에서 생전예수재나 49재때 사용하는 종이 영가옷과 주름등 제작도 빼놓을 수 없는 제작품이다.



“정성 깃든 제작에 주문량 늘어”

2001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대부분 회사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노인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성강 센터장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한두 업체가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고, 철저한 재고파악, 품질관리, 납품기간 이행, 생산성 향상으로 일거리를 늘려갔다.

처음에는 마늘까기, 봉투 붙이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맡아 했지만 지금은 더욱 기술을 요하는 다양하다. 사찰에서 생전예수재나 49재때 사용하는 종이 영가옷과 주름등 제작도 빼놓을 수 없는 제작품이다.

2001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대부분 회사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노인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성강 센터장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한두 업체가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고, 철저한 재고파악, 품질관리, 납품기간 이행, 생산성 향상으로 일거리를 늘려갔다.

처음에는 마늘까기, 봉투 붙이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맡아 했지만 지금은 더욱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수입도 늘었다.

이성강 센터장은 “전국 유통 메리야스 상자 2개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 달에 130만장, 일년에 1500만 장의 상자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섬유와 종이제조 등 경공업이 발달한 전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곳의 메리야스 상자 수요는 매우 높은데 이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하면서 지역적 요구와 맞아떨어진 덕택이다.

새로 시작한 주름등 만들기, 영가옷 만들기 등 불교용품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열쇠조립과 볼펜조립도 주문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직 교장선생님이던 한규준(전주시 평화동 · 78)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이 나이에 일을 하니 기쁘다. 일을 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 아들부부가 더 좋아 한다”고 말했다.

이성강 센터장은 “지역적 특성을 살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중점 육성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감안해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063)223-7481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스님 1000명 '법화경' 독경법회 연다

수덕사 대웅전 건립 700주년 10월 18일 행사 풍성

예산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가 국보 제49호인 수덕사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로 창건 1409년이 된 수덕사는 수덕사의 역사성과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열지 않았던 개산대재를 재개하는 등 수덕사의 역사와 사격에 걸맞는 각종 문화포교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덕사는 10월 18일 창건 1409주년 기념 및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행사로 국가와 민족의 안녕, 나와 가정의 평화, 조상과 영가 천도를 위한 만등불사 및 1000승려 동참 <법화경> 독경법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덕사는 700주년 기념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봉행위원장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추진위원장에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고문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승우 예산군수, 이종건 홍성군수를 각각 위촉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덕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700주년 기념행사에는 보기 드문 장관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덕사는 백제의 혜현 법사가 <법화경>을 설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70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1000여 스님 및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독경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 미국산 쇠고기 파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유가 급등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독경법회를 통해 평안해지기를 기원하는 뜻도 담겨있다. 특히 10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독경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수덕사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이 독경법회에 참여하고 싶은 재가불자는 수덕사로 신청하면 된다.

수덕사는 이밖에도 행사기간 중에 외국인 스님들과 외국인 불교신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선에 대해 참구하고 실수(實修)하는 세계일화대회와 동 · 서양의 법거량(선문답), 세계다도대회, 꽃꽂이 시연, 만등불사, 소림사 무술단 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수덕사에 방문한 불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건축 미니어쳐 조립, 전통 한지 등 제작, 전통 천연 염색체험, 명상의 길 걷기, 산사체험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행사에 앞서 옹산 스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인정받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이 700년이 되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준비했으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41)337-6565

손효선 기자

군종교구,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8월 2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1700여 장병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학사 비구니스님 10여명과 31사단, 32사단, 35사단, 부사관학교, 항공학교 군승법사들이 연비 등 수계지원에 나섰으며, 천태종이 법회를 후원했다. 김성우 기자

흥주사, 8월 29일 개원식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충남 태안군청이 짓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흥주사(현우 스님)지회가 운영하는 태안 첫 공립 어린이집인 '다사랑 어린이집'이 8월 29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옹산 스님(수덕사 주지), 현우 스님, 진태구 태안군수,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 문화와 자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겠다"며 "9월 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다례, 요가, 명상 등을 접목한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다사랑 어린이집'은 지상 2층의 연면적 531.4㎡ 규모로 약 50여명의 아이들이 지내게 된다. 손효선 기자

'금속활자 특별전' 상설 전시

9월 21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금속활자 특별전'을 8월 25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상설전시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번 특별전은 이날부터 9월 21일까지 전시된다.

이날 대전 교육과학연구원 최진동 원장은 "이번 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금속활자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말씀이 담긴 <직지심체요절>과 <반야심경>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제작과정과 조선시대 금속활자 제작 과정,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활자판,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인 월인천강지곡 활자판 등이 전시된다.

또한 직지심체요절(금속 활자판)과 <반야심경(목판)>을 비롯해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탐배 피는 호랑이' 등을 인쇄해 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042)601-7894

손효선 기자

충청지사 기사제보 | (043)732-5560

천태종 상월 조사 배구대회

24일 단양 공설운동장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8월 24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제35회 상월 원각 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천태종 종정 도영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김동성 단양군수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이번 대회에서는 50여 참가사찰 가운데 분당 대광사가 창원 원흥사를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개막식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청년 기상을 키우기 위해 배구대회를 개최한 것은 서로 서로가 팀을 위해 한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웃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배구를 비롯해 족구,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장애물 릴레이 경기도 펼쳐졌다.

김성우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대전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합동법회로 결속력 높여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 한동안 못 와서 죄송하다는 겸연쩍은 인사, 다음 달에는 꼭 오겠다는 불참 소식 등등.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이면 대전지역 신행단체 합동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의 목소리가 대전 백제불교회관(주지 장곡)을 꽉 채운다.

백제불교회관이 합동 법회를 열기 시작 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장곡 스님은 "각자 자신들이 다니는 절이 있을 것이고 이곳은 그냥 '장터'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곳은 그저 회를 개방하고 있다"며 "합동법회의 본래 취지는 불자들의 우의와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누구나 백제불교회관 합동 법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제불교회관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사이버 전법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백제불교회관(cafe.daum.net/gaekje)'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카페 또한 장곡 스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곡 스님은 "시대의 흐



인터넷 활용 시대 흐름 맞는 포교활동

불자들을 위한 전법 포교도량으로써 불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고, 우의를 다지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이면 법회뿐 아니라 도반들을 만나기 위해 백제불교회관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 오는 불자들은 대전 신행단체 회원들이 주를 이룬다. 대전시청불자회를 비롯한 충남도청불자회, 충남지방경찰청불자회, 대전불교언론인회, 운불련 대전지역회, 대전교사불자회 등은 불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활동분야나 장소가 달라 교류가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합동법회를 통해 교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불자들의 결속력이 강해졌다고.

이에 대해 장곡 스님은 "현재 합동법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행단체 회원들이 주로 법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일반 불자들에게도 법름에 맞게 우리 불교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터를 하나도 몰랐지만 조금 더 많은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웠고,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의 말씀처럼 백제불교회관 카페는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색다른 포교당이다. 카페 내에는 사이버 연등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곳은 물론 매일 자신을 위해 축원문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뒀다. 또한 매일 주지 스님이 직접 법문을 올리는가 하면, 불자들을 위한 사경, 사찰 예절, 불교 교리, 불교 상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장곡 스님은 "앞으로 온 · 오프라인의 백제불교회관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 전법 포교도량으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42)471-8214

손효선 기자


부산 대구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로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장 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전생 · 빙의 · 자기최면 · 치료최면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과정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 자기최면 / 타인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을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금주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특기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출판기념 특별 강연회

메주와 첼리스트 禪詩를 말하다

禪詩, 대자유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강 사 : 돈연 법사(시인 ·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일 시 : 2008년 8월 27일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현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종교 편향에 대해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렸다. 같은 날 저녁 대회가 갈무리 될 무렵, 조계사 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성난 불심을 다독이듯 초연한 선의 세계, 시의 세계로 몰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을 기념해 기획된 돈연 법사의 초청 강연이 바로 그것이다.

돈연 법사와 그의 도반 도완녀, 우리는 그들을 '메주와 첼리스트'라고 부른다. 도완녀가 강연에 앞서 연주한 '그리운 금강산'은 난해한 선시의 세계로 입장하는 데 윤활유가 되었다. 이어서 돈연 법사는 인간의 존재를 자문하는 선시의 세계를 논했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우리나라 근현대기에 선풍을 일으킨 경허 스님 이하 12분 큰 스님의 선시를 통해 선사의 삶과 선 세계를 이해하는 본격적인 선시 해설집이다.

저자 송준영은 서문을 통해 "젊은 시절 산사에서 노장 스님께 단편적으로 얻어 들은 선장들의 설화는 삶의 지표가 됐다. 눈 푸른 선사들이 도처에 웅크리고 있던 시절, 그들의 입각처인 진원지에서 더불어 크게 웃는 것이 꿈이요 현실이 되길 갈망했다. 이 책은 나의 그림자인 동시에 나의 깊은 곳에 깔린 나의 얼굴이다. 어눌한 말씨로 띄엄띄엄 들려주시던 선사의 말씀들은 고적한 산사에서 헤매던 나에게 어느 논서보다 나를 매료시켰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성향으로 길들여져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선사들의 행장이 뒤섞여 구분이 힘들어졌다. 이에 어록을 필사하고 수집 정리해 12분의 선지식을 전편으로, 나머지 12분을 후편에 모셔야겠다는 기획을 했다"고 저술동기를 밝혔다.


돈연법사.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만남 위한 가이드라인

선시에 처음 나타나는 금모사자의 한글 번역인 황금털사자는 문헌상 중국 당대에 어느 선사가 조주 선사에게 준 게송에 보입니다.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나더라도 정안의 길조가 아닐 텐데…'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오대산 청량사는 화엄종 4조 청량 국사를 기리며 건립됐는데 설법 때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금털사자는 본연의 진면목을 의미합니다. 선시 수사법에 보이는 실상의 표현이죠. 선문에서 '알 수 없다'는 불교 진원의 진체를 부지(不知) 또는 불회(不會)로서 근본의 '모르오'를 형상화합니다. 근대의 선지식이 우리에게 전하는 자비심의 실상 즉 승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조사스님의 선시는 모두 중생의 눈을 뜨게 해주고자 하는 방편으로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선장이 보여주는 생동하는 삶은 우리가 떠나온 근본 진원지인 실상으로 환지본처(還之本處)하도록 합니다. 선시는 선의 참 도리를 깨우치게 함으로서 중생을 대자유인으로 제도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의 본래면목을 표현하는 선시의 방식이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형성하고 완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시의 표현법은 후기 현대시의 중심사상으로 작용했고 선시 고유의 수사학을 두고 무한실상에 대해 모순적 어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로부터 선시를 전위적으로 해석하게 됐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禪이다

선시란 말로 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고로 선은 어렵게 인식되고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이름 없이 선수행하다 죽어간 선승들도 많습니다. 어록을 통한 기록 또한 1만 명 중 한 명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털사자의 미미소〉출간이 지닌 의미는 실로 소중합니다.

삶이란 늘 돌발적으로 움직이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선이란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dhyna)'의 음사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것, 사유수(思惟修)라는 뜻으로 고대 인도에서 요가라는 명상법 중 정신통일 부분이 불교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나마 명상(meditation)이라는 해석이 가장 흡사합니다. 6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지금의 파키스탄 유적지 모헨조다로(Mohenjo-daro)에서 선의 기원을 찾습니다. 고대인들의 사유 형식을 표현한 말로 선의 뿌리는 적어도 불교 · 중국 · 동북아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 안에 들어가면 복잡다단한 사바세계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을 언어 밖의 소식,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고 정의하죠.

저는 농부입니다. 법사라는 호칭이 과분합니다. 선을 수행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것 또한 제 본업이 아닙니다. 저는 1973년에서 1979년까지 봉은사에 살았습니다. 땅 한 평에 1100원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현재 기거 하는 강원도에는 트랙터를 몰고 4만평은 가야 할 농토가 있습니다. 제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 밑에서 번역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로 산중으로 들어가 미친 듯이 선방에 기거할 때 일입니다. 선방에서 가행정진을 하게 되면 12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납니다. 12시 정각이 되면 죽비를 치고 15분 내에 준비하고 잠자리에 든 후 2시 45분에 기상해 세안 후 3시 정각에 죽비를 치면 절 3자리로 예불을 대신합니다. 이것이 선수행의 일과입니다.

치열히 공부하는 내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도(道)란 무엇일까?' '선수행의 길이 참된 길인가?' '모든 것이 보호된 승가에서 도를 얻을 수 없다면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샘솟던 때에 광주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여전히 '나'와 '수행자'의 관계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공양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부끄러워졌고 법당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바로 인도로 향했고 대륙을 맨발로 2000km 행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원도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결혼해 자식도 셋을 낳으면서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15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100억 가까이 수익을 올렸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런지요.

과연 선의 정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를 미국으로 인도로 히말라야 사막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12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선방의 아닌 삶의 현장에서 계속 찾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을 체험하고 싶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식 유식의 여하를 떠나 '삶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대의단심이라고 합니다. 큰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선방에서 처음으로 만난 선지식이 구산 스님입니다. 스님께서 묻기를 "조계산만한 황금이 있다. 자네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안 바꾸겠다"고 답했고 스님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있으니 받거라"하고 던져 준 것이 바로 '무(無)'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현재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바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난 참 뜻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왜 왔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잊고 지내는 것 중 하나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 세계를 선택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이외의 어느 것도 내가 이 사바세계로 향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선사들은 그것을 깨닫고 아는데 신앙생활을 통하는 것보다 하나의 커다란 의심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행하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대분심을 내어 분발하고 논쟁하며 비판하십시오. 선은 분심이 있어야만 분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을 돌출해 내기 위한 비평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 용맹심을 내십시오. 현재의 비롯함은 어제입니다. 미래는 어제와 오늘의 합입니다. 부처님도 "너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오늘 현재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란 철두철미하게 마음의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의심하고 분발하는 내 모습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대한 용기입니다. 성취는 용기에 정비례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주제입니다. 돌장승이 춤을 추고 금빛 사자가 구름 속에서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선시는 이렇게 질기고도 고통스러운 실상을 노래하며 그 안의 보석을 찬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스승은 자기 자신입니다. 소설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차드 바크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 누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면 만나기 어려운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십시오.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보십시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도완녀 대표.

선시의 수사학, 무한실상에 대한 모순 어법

"선 알려면 '삶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라"

불교지도법사 과정(3년)
2008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대지도론 ②	김형준 교수
		화엄현담 ②	정엄 스님
근본불교학과 (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금 강 경 ⑥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시간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8월 1일 ~ 9월 9일(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화엄현담 (9월 9일)화요일 · 대지도론(9월 22일) 월요일
· 근본불교학과(금강경) : 10월 9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요가삼밀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 요가삼밀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8월 1일 ~ 9월 9일 · 입학금 : 250,000원

전형방법	개 강 일 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8월 접수중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9월 9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법사과정) : 9월16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례 문 화 학 과) : 9월 9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미 술 학 과) : 9월 9일(화)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 문 학 과) : 9월 4일(목)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3일(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요가삼밀학과) : 9월 7일(일)

2008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의식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2시~5시40분)	심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목요의식반	2년	매주 목요일(낮 12시)	문종순법사	실 기
· 전통범패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실 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토요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목요반 20명(2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9월 11일 목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토요반) 오후 2:00 ~ 5:40 · 매주 목요일 낮 12시 (목요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9월 6일(토) 오후 2시 (토요의식반)
9월 11일(목) 낮 12시 (목요의식반)
9월 5일(금) 오후 3시 (범패의식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원서교부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서읽기 캠페인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천불탑에 투영된 수행자의 길

이판과 사판의 갈등 '불사' 통해 치밀하게 묘사

'갠지스 강은 영원하지만 천불탑은 유한하오. 갠지스 강이야말로 영원한 탑이 아니겠소. 아니, 온 세상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탑인데 굳이 사리를 구해 어디다가 모신다는 말이오. 다 꿈속의 꿈일 뿐이오.'

미망과 깨달음은 둘로 나뉘지 않는 것일까? 저자 정찬주가 실제 인도를 여행하며 세상의 청정을 발견하고자 하는 구도의 심정으로 써내려간 소설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붓다와 만나 야망을 불태워온 주인공 최림은 저자의 내면을 반영한 인물로 등장한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상에 환생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서원으로 늦여름을 보내고 가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서 그들은 깊고도 깊은 사바세계 속으로 한없이 질주한다.

과연 '법상 스님의 길이 옳은 것인가, 지웅 스님의 길이 옳은 것인가' 모두가 혼돈스럽다. 형상으로도 소리로도 부처를 찾지 말라 하는 선승 법상 스님이 있다. 반면 장엄한 탑을 조성해 불국토를 이루고 말겠다는 불퇴전의 의지를 지닌 야심찬 수행자 지웅 스님은 궁극의 진리라는 동일한 화두 앞에서 법상 스님과 서로 얽혀 있다.

소설 <천불탑의 비밀>은 실제 황룡사 9층탑을 모델로 삼는다. 천불탑은 무려 80m 높이로 기단(基壇)은 200평수의 법당형태로 조성 중이다. 지웅 스님은 부처님의 사리를 천불탑에 봉안해 불국토를 한반도에 완성하고픈 일념뿐이다. 신라 고승 자장 율사가 원을 세우고 출중한 지혜를 지닌 선덕여왕 명으로 조성됐던 황룡사 9층탑, 불법의 진리로 그 빛을 천지 사방으로 흡뿌리고자했던 본뜻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천불탑에 봉안될 사리를 모셔오겠다고 인도로 향한 법상 스님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갈등은 심화된다.

시간이 흘러 한반도의 중심 중원에 야망의 결정체 천불탑이 그 위용을 드러내는 순간이 도래한다. 최림의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천불탑이 솟아오른다. 형상에 그림자가 따르듯 무형의 소리탑이 울리는 풍경소리의 합창이 펼쳐진다.

지혜를 구해 성불하고자하는 운수승과, 중생을 제도해 성불하겠다는 사판승의 구도심은 부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마음에 지니는 양면성일 것이다.

출가 수도승의 번뇌가 무엇인지 엿보고 싶었던 것일까? 저자는 후기를 통해 "인도를 여행하면서 체험한 가치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한다.

'부처가 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의문에서 시작된 소설 <천불탑의 비밀>은 그 길로 들어선 이상 제어 불가능한 속도로 달려야만 하는 고속도로 위의 실존을 탐구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천불탑의 비밀
정찬주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원

선가 고전 최초로 번역



증도가 언기주(證道歌 彦琪註)
제월통광 현토역주
불광출판사 펴냄 | 2만원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게 피네. 본분의 자리는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듦이 없으니 수행하여 깨달음이 달리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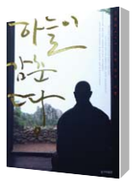
시대를 초월한 선가의 고전이 최초 번역됐다. 무명의 미혹이 곧 불성임을 환기하는 방편문의 정수를 맛본다. 영가스님의 '증도가'에 대한 언기 스님의 주석을 제월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 조계종 역경위원장)이 현토를 달고 역주해 대승선(大乘禪)과 돈오선(頓悟禪)의 진수를 전한다. 수많은 선사들이 증도의 가르침으로 삼아 수행을 점검하는데 인용된 선가의 고전이다.

<증도가 언기주>가 <증도가>의 주석서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는 것은 영가 스님의 <증도가>와 언기 스님의 주석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기 스님의 주의 원문에 현토하고 직역함으로써 원전 해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다. 부록에는 역대 조사의 전법게를 수록해 주옥같은 게송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월통광 스님은 1940년 지리산 칠불사 인근마을에서 출생, 1959년 당시 서굴암에 주석하던 여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오대산 월정사 탄허 스님의 법을 이어 지리산 칠불사를 복원, 현재 회주와 강원 강주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고봉화상 선요 · 어록>과 <초의다선집> 등이 있다.

가연숙 기자

종교전문기자의 오지 암자 기행담



하늘이 감춘 땅
조현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 1만4000원

종교 · 명상 전문기자가 대한민국 오지 암자를 여행하며 써내려간 기행담을 책으로 냈다. '거기(there)'가 아닌 '여기(here)'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배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담긴 순례자의 작은 쉼표다.

<하늘이 감춘 땅>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에 '조현 기자의 휴심정'으로 연재돼 온 은둔 수도처를 갈무리했다. 저자는 차로는 갈 수 없는 수백리 산길을 홀로 걸어간다. 무인지경(無人之境)의 암자에 기거하는 수행자와 만나 나눈 대화를 가슴에 심고서 다시 대중 곁으로 돌아와 풀어놓기를 반복했다. 저자가 맛본 홀로 아리랑의 묘미가 솔직 담백하다.

상무주암에 올랐을 때 일이다. '오르기 전 꿈속의 삶이 너무나 복잡다단해서였을까. 청정한 암자 음식이 오염된 세인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것일까. 암자에 머문 3일 동안 설사가 끊이지 않아 찬물도 마시지 않고 설사를 멈출 일을 고심하는데 스님은 오히려 딴소리다. "찬물도 계속 마셔서 몽땅 쏟아버려. 버릴 것은 버려야지!"하는 것이다.'

에누리 없는 선승의 경책을 죽비삼아 거친 속을 달랜 경험을 풀어 놓는다.

신문사 안팎에서 저자의 별명은 '선사'다. 그가 절보다 더 절 같고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 세인의 고단함을 도닥여준 천상의 샘물을 맛본 이야기가 맑게 그려진다.

가연숙 기자

장례문화지도자 위한 개론서



불교 상장문화 연구
백성 지음|한지 펴냄 | 1만5000원

죽음과 관련한 모든 문화를 아우른 상례 개론서이다.

고문헌의 번역과 규정적 인식을 그대로 답습해온 기존의 문헌증거자료를 다각도로 해석했다. 상례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다변화된 현상들을 나름대로 수집해온 필자가 보편성과 특이성을 기초로 새롭게 접근한다. 불교와 민속 그리고 무속 사상과 불교 생태학을 기초로 유교 · 도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와 같은 기타 관련 종교까지 필요한 사례를 활용했다.

<불교 상장문화 연구>는 생사(生死)를 정의하는 것으로 첫 장을 연다. 불교의 사유설(四有設)로 표현하는 생유(生有) · 본유(本有) · 사유(死有) · 중유(中有)의 개념을 여러 경전과 논서를 근거로 제시한다. 이어서 사후세계와 장례문화, 추모문화로 총 4장에 걸쳐 문헌학적 근거로 접근한다. 장례문화를 연구하는 학생은 물론 상장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례문화지도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초 자료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인과경	현담	선
4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6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운주사
9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10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화제집중 관세음보살 순금(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대웅전 건립불사
천 선 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 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譯者, 책을 말하다

지금도 유효한 삶의 방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칙수백장청규 역주

동양덕휘 중편 , 소은대소 교정|최법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



청규와 계율의 차이

'청규(淸規)'라고 하면 먼저 중국의 백장회해(720~814) 선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선사의 유명한 말씀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않는다'는 금언이 떠오른다.

원래 불교에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장이 있다. 그 밖에 또 다른 율장은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율장이란 이름으로 계율을 만들거나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부처님 열반 후 제 1결집에서 500비구들이 결의한 사항으로서 지금도 그 원칙과 사상이 존중되어 계승되고 있다.

청규란 출가수행자의 수행완성을 위하여 선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정한 많은 대중들이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백장 선사는 부처님의 율장가운데 예외 규정인 수방비니(隨方毘尼) 즉 특별한 경우 부처님께서 그 지역 그 문화에 따라 수계 등 의 · 식 · 주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로 법에 정해준 내용을 준하여 율장이 아닌 청규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규의 내용은 율장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백장 선사의 <고청규>는 지금은 전해오는 것은 없다. 그러나 백장 선사 입멸 후 송대부터 시작하여 원 · 명 · 청 대를 내려오면서 찬술된 청규는 수종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신라 고려를 통하여 흥성하였던 선종은 조선조 500년의 숭유 억불정책과 종파통폐합의 영향으로 선(禪) · 교(敎)의 양종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승려취처의 정책으로 거의 왜색불교화 되었다. 때문에 종합수도원인 총림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적당한 선원 운영과 거기에 알맞은 규약을 만들고 또한 결사의 형태로 선사상과 선맥을 계승하고 있었다.

청규의 종합판 '칙수백장청규'

중국에서 찬술된 청규서 가운데 그 대표적인 청규는 송(宋)대 자각종색 선사의 <선원청규>(1103년 찬)와 원(元)대, 1338년에 찬술된 <칙수백장청규>라고 할 수 있다.

<칙수백장청규>는 원대 중국 청규의 대표적 청규서이다. 이 청규는 황제의 칙명에 의하여 동양덕휘 선사와 소은대소 선사가 함께 종색의 <선원청규>와 유면 선사가 찬술(1274)한 <총림교정청규>, 일함 선사가 찬술(1311)한 <선림비용청규> 등을 참고하여 찬술했다. 다만 칙명에 의하여 전국에서 시행한 청규라는 비자주적인 점도 있지만 당시 중국의 여러 청규서를 상고(詳考)한 체제가 완비된 청규서로 인정받고 있다.

그 <칙수백장청규>는 총 9장 8권(혹 2권)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축리(祝釐) · 보은(報恩) · 보본(報本) · 존조(尊祖) · 주지(住持) · 양서(兩序) · 대중(大衆) · 절납(節臘) · 법기(法器)장으로 되어 있다.

이 칙수청규의 내용에는 행자교육에서부터 비구들의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소임자들은 대중을 위한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대중이 방장스님께 청문하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연구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청규에 의한 생활이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수행해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청정교단 정법 유전의 근본 세우기

조계종은 종헌 · 종법에 의하여 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헌 · 종법의 근저에는 청규와 계율을 의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구 · 비구니 수계의식과 종단의 구성 그리고 비구 근본계율인 4바라이 등은 계율에 의지하고 있으며, 금전의 취급과 사원을 중심으로 한 의 · 식 · 주의 생활, 그리고 공동작업 노동 등은 계율에서는 모두 금지 조항이지만 청규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국가에 헌법과 법률이 있듯이 불교 교단에는 계율과 청규와 종헌 · 종법이 있다.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잘 준수하여야 청정한 교단을 유지 할 수 있다. 특히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는 조계종은 모범적인 청규를 편찬하여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오래 유전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내용상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칙수백장청규 역주>가 제방 선원에서 수행하는 선원스님들과 전국 율원에서 청규를 연구하는 스님들은 물론 청규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것은 이번에 출간된 책은 모두가 비매품 법공양판으로 전국의 선원과 율원 교구본사 승가대학 등에 보급하여 시중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후일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교관계 도서관을 이용하기를 부탁드려야 하니,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울 뿐이다.

■ 법혜 스님



해인사로 출가하여 해인강원에서 내전을 수학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본 大正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학장 및 정각원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및 안동 봉정사 주지를 거쳐 현재 대구 대각사 회주.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4>

경전 구성의 필수 요소는 '육성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3개월 전에, 법회를 열어 <열반경>을 설해마치시니, 대중들은 머지않아 닥쳐올 부처님의 열반을 아쉬워하며 미리부터 마음 아파했다. 그중 상수, 가섭존자는 구시나성을 벗어나 어느 한적한 동산에서 선적에 드셨고, 아난존자는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이때에 대중 중의 원로비구들이 아난존자에게 말하기를 "존자는 호지법장자로서 법등(法燈)이 곧 사라지려는데 울고만 계시면 어찌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존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되물으니, 대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부처님께 여쭈어두라고 했다. 그 네 가지란 지혜의 횃불이 꺼지신 뒤에, 첫째 무엇을 의지해야합니까, 둘째 누구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승으로 모셔야하겠습니까, 셋째 간혹 포악한 비구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겠습니까, 넷째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경전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경 첫머리에다 무어라 써야 하겠습니까 등이었다.

첫째 물음에는 사념처(四念處)에 의지하라 하셨다. 사념처란 수행자가 마음을 묶어두어야 할 네 가지 덕목(德目)이다. 첫째, 이생선영불실(已生善令不失) 이미 생긴 선(善)은 잃지 말라. 둘째, 미생악영불생(未生惡令不生)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못하게 하라. 셋째, 이생악영단(已生惡令斷) 이미 생긴 악(惡)은 끊으라. 넷째, 미생선영생(未生善令生)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라 이다.

둘째 물음에는 이계위사(以戒爲師)하라. 즉 계(戒)로써 스승을 삼으라 하셨다. 계는 만고의 바른 스승이시니, 계를 지키면 있는 곳 어디서나 스승을 만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셋째 물음에는 묵빈대처(默擯對處)하라 하셨으니, 묵빈대처란 포악(暴惡)한 놈이 수행대중을 괴롭히면 제압(制壓)하거나 내쫓는 대신 제풀에 꺼지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용해지게 하는 것이 싸워서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마지막 물음에는 경 첫머리[經首]에 육성취(六成就)를 두라는 것이다. 육성취란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춘 머리말이란 뜻이니, 신(信=宣誓)·문(聞)·시(時)·주(主)처·(處)·중(衆) 등 여섯 가지인데 이 여섯 가지 조건(條件)이 갖추어져야 경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설법의 사실성 입증
아난의 송출에 대중의 증명으로 믿음 줘

전의 권위(權威)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러 경전 중,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금강경(金剛經)>의 육성취를 예로 든다면 첫 머리의 여시(如是)는 신성취(信成就)요, 아문(我聞)은 문성취(聞成就)요, 일시(一時)는 시성취(時成就)요, 불(佛)은 주성취(主成就)요, 재사위국(在舍衛國) 云云은 처성취(處成就)요, 여대비구중(與大比丘衆) 云云은 중성취(衆成就)다. 이 여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송경자(頌經者) 아난이 송출(頌出)하고, 대중이 증명(證明)한 여법(如法)한 경이라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다.

마치 극본(劇本)을 짜 놓은 듯 모든 일이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진행되자, 부처님께서는 구시나성(拘尸那城) 사라쌍수(沙羅雙樹) 사이에서 조용히 열반(涅槃)에 드셨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농축액 (진액) 50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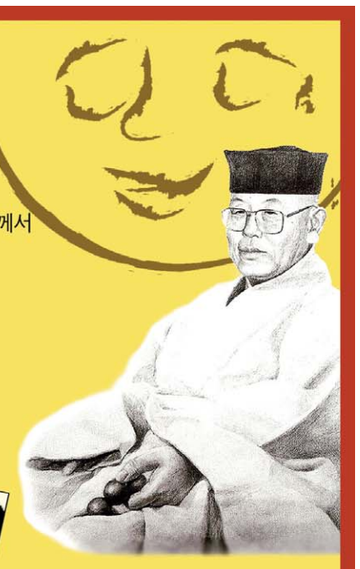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심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스스로 깨달음의 주인 되라

오늘의 禪語

㉝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隨處) 주인공이 되면(作主), 그곳은(立處) 모두 진리다(皆眞).'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설명 가지고 신문에 글을 쓴다고 껍적댈 수는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정도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깨달음 주체자 되면 있는 그 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
긍정적·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내 인생 이끌 수 있어

이 선어는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임제의현(?~867) 선사의 말로서 그의 법어집 <임제록>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위진인(無位眞人,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임제의 선(禪)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은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된다면 현재 서 있는 그곳은 다 참되고 진실한 곳'이라는 뜻이지만, 보다 자세히 말하면 '스스로 깨달음의 주체자 즉 주인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그곳은 모두 다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의 소유이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감정에 이끌려 주체자로서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번뇌와 번민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 객(客)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번뇌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번민이 깊게 몰려와 일신(一身)을 감돌고 있다"는 어느 시인의 독백처럼, 번민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경험해 봤지만 이상하게도 번민은 조용할수록 더 찾아오고 한가할수록 더 찾아옵니다. 좀 잊어볼 요량으로 술이라도 한잔 하면 한숨이 되어 찾아오고, 여행을 하면 여수(旅愁)가 되어 찾아옵니다. 만사가 번민으로 변하여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언제쯤 번민으로부터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람 같은 번뇌 망상에 얽매여 하루 종일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자각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서가 전도되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깨달음의 주체자/주인이 된다면 삶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면 번뇌는 객(客)이 됩니다. 객은 아무리 많아도 무력합니다.

깨달음의 주인이 되면 걸림 없는 무애한 삶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근심 걱정 등 번민이 들어와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때의 번뇌는 그저 일상사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번뇌가 들어와도 나와는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주 당당해집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떳떳해 집니다. 번뇌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세상은 봄날처럼 따뜻하고 환해집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은 모두 아름다운 세계가 됩니다. 입처개진(立處皆眞). 말 그대로 바로 지금 그 자리가 진리가 현현(顯顯)한 자리(=眞)입니다.

삶의 주체자, 생활의 주체자, 인생의 주체자가 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 그날의 운수나 일진, 여건,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울했던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흔한 일에 너무 상심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하루를 유익하게 활용하여 마음은 좀 한가롭게, 육체는 좀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매일 지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바쁘도 피곤하지 않지만, 날마다 여건을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살면 한가해도 몸과 마음은 매우 고단합니다.

생활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녁에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2시간만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활용한다면 어느 분야든 5년이면 노하우가 쌓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전공 말고 다른 전공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100% 증가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는 어디서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의 삶은 보람 있는 삶입니다. 인생과 예술을 만들 수 있고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번뇌에 끌려서 살지 말고 자신이 주체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구속 없는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임제록>은 유명한 선서(禪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열반하신 서옹 큰스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임제록>을 강의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어록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수행자가 이루려는 세계는 여래출현의 법계

㉝ 법신(法信)

병 치유 위해 채식, 계율 지키며 '아미타불' 염불
보현행·염불수행·16관법으로 깨달아 '왕생극락'

중국 송나라 때 정토종의 선지식 가운데 풍씨부인(馮氏夫人)이 있었다. <예념미타도량참법>과 <화엄경 영험록>에 기록된 그녀의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풍씨부인의 이름은 법신(法信)이며 소사(少師)를 추증받았는데, 휘(諱)는 순지(詢之)이다.

부인은 진선사(陳宣使)에게 시집을 갔는데, 진선사의 사랑과 공경을 받으며 결혼생활을 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던 법신은 결혼 후 병이 더욱 심해졌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진단하자, 그는 자수심(慈受深 또는 守心) 선사를 찾아뵙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화엄경>과 <16관경(觀無量壽經)>을 주며 말했다.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며 이 경을 독송하시오."

이에 부인은 육식을 끊고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모두 버리고 나서 탑을 청소하고 염불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녀는 가고 앉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였다.

한 찰나에 털끝만큼이라도 선(善)한 생각이 일어나면 청정수와 꽃을 바쳐 송경(誦經)과 행도(行道)를 한결같이 하였다. 이렇게 10년간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자, 드디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해졌으며 청정한 기운이 왕성해져서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화엄경 영험록>은 "법신은 스님의 말씀과 같이 10년 동안 <화엄경>과 <관무량수경>을 독송하여 병도 낫고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인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썼다.

"연을 따라 업 지음이 그 몇 해인고/ 늙은 소가 헛되이 밭을 갈았네/ 신심(身心)을 거두어 일찍 돌아갔으면/ 사람들에게 콧구멍 뚫림은 면했을 것을."

친척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자 부인이 말하길, "가면 서방정토로 가는데 무슨 괴이함이 있으랴"하고는 이내 병들어 누웠는데, 미미한 천식(喘息) 기운이 있었다. 그는 임종 하루 전날, 홀연히 눈을 크게 뜨고 단정히 앉아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정신이 정토에서 노닌다. 면전에서 아미타불께 예를 올리는데, 왼쪽에는 관음보살께서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께서 계신다. 돌아보니, 백천만억의 청정한 불자들이 머리를 조아려 내가 이 국토(극락정토)에 와서 태어남을 경축해주고 있다. 궁전의 숲과 연못에서 나오는 광명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화엄경>과 <관무량수경>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다음날, 부인은 편안하게 앉아서 숨졌고 집안 사람들이 미묘한 향내음을 맡았는데, 인간세계의 것과 같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 다비를 하였는데 그 몸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다고 전한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법신은 <화엄경>의 보현행과 염불수행,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왕생극락했음을 알 수 있다. 염불수행의 소의경전인 <관무량수경>과 마찬가지로 자력수행을 강조하는 <화엄경>에도 정토경전에서 볼 수 있는 염불이나 본원(本願), 왕생, 정토, 극락세계 등의 용어들이 등장한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도 구원겁(久遠劫) 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한 공덕으로 정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아미타불이 중생구제를 위한 48대원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불하게 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보살행과 다르지 않고,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역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화엄경>은 <법화경>과 함께 선종의 '본래성불(本來成佛)' 사상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상하고 이상하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미혹하여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를 가르쳐서 망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속에서 여래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화엄경> '여래출현품')

이 고귀한 법문에 따르면, 수행자가 이루려는 세계는 곧 중생이 본래 구족한 지혜 즉, 여래성(如來性)이 그대로 발현되는 여래출현의 법계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석왕사 중창 31주년 개산대제**=부천 석왕사가 중창 31주년 기념 개산대제를 개최한다. '석왕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9월 29일 오전 11시 법회를 시작으로 30일 오전 11시 이시우 前 서울대 교수가 '지구환경변화와 불자들의 자세'를, 10월 1일 오전 11시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광우병, 도대체 무엇인가'를 강의한다.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입재하는 삼천배 정진기도는 매일 500배씩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032)663-7771

●**봉선사 교양·경전·불교의식 강좌 개최**=남양주 봉선사가 제35기 교양강좌, 제11기 경전반, 제2기 불교의식반을 모집한다. 9월 9일 개강하는 제35기 교양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업이 진행된다. 5일 오전 10시 개강하는 제11기 경전반은 6개월 과정으로 <화엄경>을 공부한다. 제2기 불교의식반은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인묵 스님이 직접 교육한다. 4개월 과정으로 4일 오전 10시 청풍루에서 개강한다. (031)527-1951

●**보리수선원 9월 수행**=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가 인기다. 78일째를 맞는 9월 3일에는 진철 스님(만불선원)이, 4일에는 화암 스님(포천 동화사 주지)이, 5일에는 일진 스님(운문사 승가대학감)이 법좌에 오른다. (053)766-374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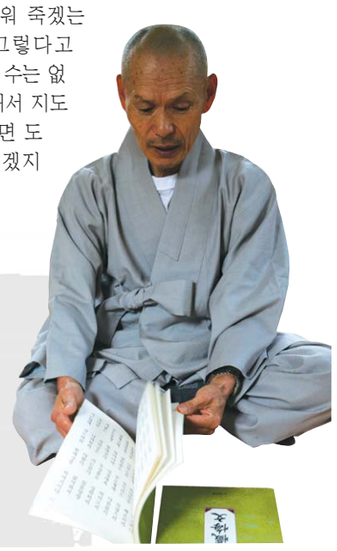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선지식을 찾아서 만수

“도를 이루고 싶으면 가난부터 배워라”

은사 성철 스님의 ‘성전암 동구불출’ 시봉 행자 생활 10년…“최저생활로 최고 노력을”



파도고개를 넘어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지만 절의 팻말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골목길 끝까지 가 보았더니 대문에 걸린 연등 하나가 하염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열댓 평 남짓 되는 법당이 눈에 들어온다. 법당 앞에는 세 그루의 측백나무가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으며, 크고 작은 수십 개의 화분이 단청 없는 법당에 수를 놓고 있다.

성철 스님의 세 번째 상좌인 만수 스님은 성정이 어질어서 큰스님이 참으로 좋아했다고 한다. 금각사를 둘러보면서 거처 꾸미는 것을 싫어하여 백련암에 단청도 하지 않고 지내셨으며, 꽃을 좋아하여 송이마다 화장찰해(華藏刹海)라고 했다는 성철 스님을 떠올렸다. 허름한 요사채를 손볼 요량도 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나 꽃을 좋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성철 스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만수 스님은 성철 스님에 대해 이런 비유조차도 가당찮은 일이라면서 “은사스님의 천만분의 일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손을 내젓는다. 금각사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중생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인 시장이 있고 번잡한 두류공원이 있지만, 만수 스님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깊고도 고요하다.

지금의 종정이신 법전 스님께서는 만수 스님을 두고 ‘걸어 다니는 옥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만수 스님은 옥편을 줄줄 외울 정도로 한문에 능하다. 한문으로 된 경문을 읽으려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사서(四書)를 배워야 한다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유가(儒家)를 공부했다. 지금의 천제 스님을 비롯하여 행자들과 나무하고 밥하면서도 사서의 구절구절을 소리 내어 외웠다.

성전암에는 하루 종일 행자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성철 스님은 그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좋았던지 한 번도 시끄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사서를 얼추 다 공부하고 나서는 일본어를 독학하여 일본어로 된 경서를 능히 읽을 정도가 됐다.

“자율적인 공부 방식이었기에 못해도 야단치는 법이 없었어요. 사서를 떼고 나니 경문을 읽고 외우라고 하데요. 주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육조단경> 등을 공부했는데, 그중에서도 <금강경>과 <육조단경>은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을 성철 스님께서 나름대로 점검하셨지요.”

만수 스님은 ‘너는 아무래도 불가와 인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열다섯 살에 입산하여 성철 스님을 만났다. 그때 성철 스님은 성전암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공부를 하던 때라 바깥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됐다. 성전암에서 나무하고 밥하고 공부하면서 구년의 세월동안 스승을 모셨고, 김용사에서 일 년 동안 더 스승을 모신 다음 사미계를 받았다. 세간 사람들은 십년동안 행자노릇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지만 십년의 세월도 금방이란다.

“성철 스님은 직접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올렸고, 우리와 더불어 지게 지고 나무 한 짐씩 해다 날랐어요. 스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공부고 수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은 가끔씩 들러 살림살이를 꼼꼼히 보아주시면서 당신께 공부를 점검받았던 법전 스님과 청담, 자운, 향곡 스님 등 몇 분 말고는 다른 일반인들은 일절 만나지 않았다. 큰스님들의 법거량을 가까이서 지켜보곤 했던 만수 스님은 절로 신심이 났다. 어느 덧 수행생활 쉰 해를 훌쩍 넘겼지만 성전암 시절만큼 간절히 공부한 적도 없었다고 회고한다.

성철 스님은 “참으로 수도를 하려면 최저의 생활로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도를 하려면 먼저 가난부터 배우라”고 항상 일러주셨다. 그 옛날에는 나일론을 고급으로 치던 시절인지라 누군가가 나일론 양말을 보시하면 성철 스님은 “나는 나일론이 흔해질 때까지 신지 않겠다. 너희들 신어라”고 하셨다면서 은사스님의 검박함을 떠올렸다.

만수 스님은 경문을 외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금강경> 첫 구절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강경> 첫 구절은 언제 읽어도 가슴 설레인다”고 했다.

‘세존께서는 진지 드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발우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성안에서 차례대로 비시었다. 그리고 절로 돌아오셔서 진지 잡수시고는 가사와 발우를 거두시고 발 씻으신 뒤 자리 펴고 앉으셨다.’ 이 구절은 이천육백 년 전의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스승님의 일상생활이기도 해서 아련한 그리움을 자아낸단다. 그리고 또 수행자의 일상이기에 과연 수행자답게 잘 살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만든다고 했다.

사미계를 받던 날 삼천 배를 하고 은사스님으로부터 ‘조주 무(無)자’ 화두를 받았다. 그 후 여러 선방을 전전하면서 공부하였다. 그러다 백련암으로 돌아와 스승을 삼년동안 더 모셨다. “눈을 뜨고 보면 우리 모든 존재가 광명세계 속에 살고 또 그 자체가 광명”이라는 스승의 말씀은 만수 스님의 공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백련암에 눈이 쏟아진 어느 겨울날 성철 스님께서 산책을 하시는데 눈밭에 속옷이 하나 너부러져 있었다. 이를 본 성철 스님은 ‘빨래를 하기 싫어서 눈밭에 버렸다’고 생각하여 “이거 누구 옷이고?”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만수 스님이 얼른 뛰어나왔다.

“옷에 이가 많아 가려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해서 지도 추우면 도망가겠지 싶어 눈밭에 옷을 널어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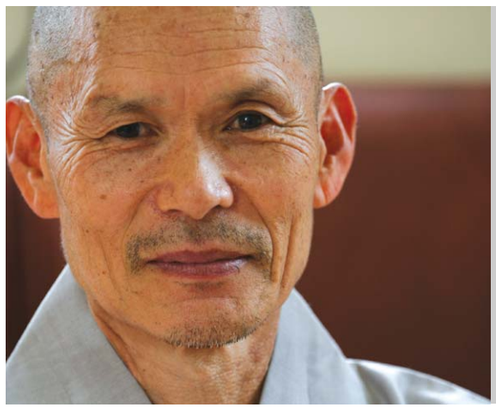
이렇듯 ‘출가자로서 안해도 될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은 마음 속 깊이 각인되어 평생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청정한 계율을 견지하여 훼범(毁犯)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최후 유훈은 불교의 생명”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신 스승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만수 스님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내놓을 것이 없다며 훗날 공부가 되었을 때 내놓겠다면서 스승님의 이야기 외에는 모든 것을 사양했다. 어떻게 하면 참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선 공부요, 모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참선공부지요.”

우리의 삶이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생성되고,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 한 땀 한 땀 엮어지면서 생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니 ‘지금 이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가 아닐까 싶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만수 스님 (금각사 주지)

1955년 입산. 1965년 김용사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6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그 후 전국의 여러 선원에서 안거를 수선. 1988년부터 금각사에 머물고 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3 메밀차

보름달 환하게 비추는 봉평마을, 온 산과 들을 휘감은 시리도록 하얀 메밀꽃 사이를 흐르는 개울을 건너는 장돌뱅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 메밀은 마음의 고향 같은 식품이다

메밀에 함유된 루틴은 모세혈관 강화작용을 한다. 루틴은 비타민P로도 불리며 혈관의 투과와 신축성에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내려준다. 메밀종자의 루틴 함량은 17㎎/100g 내외. 메밀은 발아초기 루

메밀은 잎이 나기 시작해 잎의 양이 증가할수록 루틴 양이 증가하다가 개화기 이후 감소한다. 메밀종자의 껍질에도 루틴이 47.8㎎/100g함유돼 있으며 꽃은 377㎎/100g로 가장 많은 루틴을 함유한다.

메밀에는 루틴 이외에도 10여 가지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가 함유돼 있다. 이 성분들은 동맥경화 예방 및 치료 · 고혈압 · 고지혈증 등에 사

루틴, 모세혈관 강화작용 … 고혈압에 좋아

위장병, 녹내장, 당뇨병, 암 예방·치료에 효과

틴함량이 31.5㎎/100g이던 것이 초기에는 약간 감소하다가 발아 4일째부터 급격히 증가해 발아 1주일 후에는 처음 루틴함량의 50배에 이른다.

수용성인 루틴은 메밀을 삶을 때 물에 우러난다. 이것이 메밀 삶은 물(메밀국수 국물 등)을 가능한 버리지 말고 마셔야 하는 이유다. 루틴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이 더 많이 생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레몬 · 오렌지 · 브로콜리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곁들여 먹으면 좋다.

용된다. 메밀채소는 소화가 잘되고 영양소가 풍부해 옛부터 식탁에 나물반찬으로 올려졌다.

또한 변비랑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12~15% 단백질이 함유돼 다른 곡류 작물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을 많이 함유한다. 풍부한 지방 · 철 · 인 · 아연 등 무기질과 비타민 B1과 B2도 많이 함유한다. 성인병인 동맥경화 · 고혈압 · 녹내장 · 당뇨병 · 암 · 위장병 · 간장병 · 신장병 등 예방 치료에 효과가 크다.

산촌 (02)735-0312



메밀차 재료 : 메밀, 물, 죽염.

만드는 법

① 메밀은 방앗간에서 겨피를 내온 다음, 냄비에 노르스름하게 볶아 병이나 항아리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차 마실 때마다 사용한다.

②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볶은 메밀을 3~4스푼 넣어 노르스름한 물이 우러나면 죽염으로 맛을 낸다.

③ 겨피낸 메밀을 가루로 빻아 감자와 함께 수제비를 만들어도 별미이고 자라는 메밀을 부드러울 때 된장과 고춧가루, 식초를 넣어 먹어도 별미이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❼

첫서리 맞은 뽕잎차 감기면연력 키워

뽕잎차는 야생 뽕나무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야생 뽕나무는 비료나 퇴비를 멀리하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깊고 그윽하다. 삼에 비유하면 사람이 조성한 뽕나무 밭에서 사람 손길을 탄 것은 인삼, 깊은 산 속에서 잡목 잡초와 더불어 사는 차는 산삼에 해당한다.

겨울 문턱에서 첫서리 맞은 산삼 뿌리와도 같은 뽕잎차는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차다. 그러니 첫서리 맞은 야생 뽕잎차 한 모금이면 산삼 달인 물이나 어떤 보약보다도 좋겠지만 이름조차 낯설 정도로 멀게만 느껴진다.

신선목으로도 불리는 뽕나무의 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한다. 신선엽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해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 장복을 하면 흰 머리가 검어진다는 말도 있어 선조들은 예로부터 건강을 위해 뽕잎을 찾아 즐겼다.

뽕잎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다. 구체적으로는 철분, 칼슘, 아미노산, 섬유질 등이 이상적으로 들어있어 다이어트 효과로는 최고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도 효과적인데 꾸준히 복용하면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침, 가래를 내리고 부석부석 몸이 붓는데 효과를 보인다. 또한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가족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건강 약차가 뽕잎차다.

몸에 좋은 차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발심차는 한번만 마셔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오줌이 많아지고, 자주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차의 고소한 뒷맛은 오래도록 기분을 상큼하게 해준다. 우선 맛이 좋고, 나중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맛과 향이 뛰어나다.

뽕잎차를 마시는 방법은 일반 녹차와 같다. 다만 일반 녹차가 80℃에서 가장 좋은 맛을 낸다면 뽕잎차는 뜨거운 열탕으로 20초 우려낸 후 마시면 가장 좋은 맛을 낸다. 3번 정도 우려내는 녹차에 비해 뽕잎차는 5번 이상 우려내도 맛이 좋다. 그리고 다구가 없는 이들도 보온병에 한 티스푼 정도 뽕잎차를 넣어 복용해도 좋을 만큼 간편하다.

뽕잎은 갈증을 없애는데도 좋다. 때문에 당뇨 환자뿐 아니라 더운 여름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 해소에도 도움돼 사계절 즐길 수 있다.

처음 뽕잎차를 개발한 것은 스님들을 위해서였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잠을 쫓기 위해 녹차를 즐겨 마시는데 녹차는 몸을 냉하게 하고 위에 부담을 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이유로 열탕으로 마시는 중국의 우롱차나 보이차가 인기를 끌었지만 이 또한 가격이 비쌀뿐더러 믿을 수 있는 차를 구하기도 어렵다. 아예 커피를 즐겨 마시는 스님들도 늘고 있다니 차 하나에 스님들의 생활이 엿보인다.

특히 주지스님들은 많은 이들을 만나다보니 차를 많이 마셔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나 또한 몸이 안 좋아짐을 느낀 후로는 뽕잎차만 마신다. 마실수록 몸에 좋고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니 이 보다 좋은 차를 찾을 수 없지 않겠는가. (055)931-9590 (계속)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41 틀니를 할까? 이를 심을까?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VS 검증된 치료법 틀니

여러가지 이유로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 빼야 할 치아가 여럿일 때는 치아를 뺀 후 치아가 없어진 위치에 틀니를 했고, 빠진 치아가 한 두 개일 때는 양 옆의 치아를 삭제 후 금관(크라운)을 씌워 인공치아를 걸어주는 보철치료를 했다. 특히 맨 뒤 어금니를 뺀 경우 틀니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었다.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입안에서 끼었다 뺐다 하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여긴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아가 없는 위치의 턱뼈에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된다. 치아 뿌리처럼 생긴 금속체를 턱뼈에 심어 단단히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 기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철 치료법인 것이다.

치아가 한두 개 상실된 경우는 물론, 치아가 여럿 상실된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은 유용하다. 특히 최후방부 치아가 하나 이상 상실된 경우 임플란트 치료는 틀니를 대체한 유일한 시술법이다.

임플란트는 본래 자신의 치아와 같은 감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인공치아 뿌리 재료는 생체에 전혀 해가 없는 티타늄 등을 사용한다. 시술은 생체적합성이 탁월한 치근모양 금속고정체를 턱뼈에 심는 수술과정을 거쳐 그 윗 부분에 자연치아와 유사 한 인공치관을 올려주는 보철과정으로 진행된다.



임플란트 모습.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이식술을 통해 틀니 사용 시 피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틀니의 금속고리 부분이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 전에는 임플란트 필요성 여부와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 구강 상태 등을 검사한다. 특히 임플란트는 환자가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환자가 임플란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임플란트 치료단계는 크게 수술과 보철단계로 나뉜다. 치아가 없는 부위의 뼈 상태가 단단해지면 사람의 몸에 들어가도 해가 없는 생체친화성이 좋은 재료의 임플란트를 악골내에 심어 자연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다.

수술 후 3~6 개월 안정기간을 거쳐서 임플란트가 융합돼 일체감을 갖도록 한 후, 뼛속의 임플란트에 기둥을 세워 잇몸 밖으로 노출시킨다. 기둥이 세워지면 그 위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모양의 인공치아를 장착한다.

이렇게 시술된 임플란트는 어떤 음식이든 저작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 및 미소가 가능하게 해 적극적 생활과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 뿐만 아니라 인접 치아는 건드리지 않으며, 치아결손부위의 뼈수축을 막아 안면 외모를 유지시켜 준다.

남아있는 잇몸뼈가 충분해야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쉬우므로 뼈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임프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 잇몸뼈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상악동 골이식술, 골 확장술, 인공뼈 이식술 등을 통해 뼈의 양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

틀니도 오랫동안 치료된 방법으로 검증된 치료법이다. 위에 나열한 임플란트 장점이 틀니의 단점이다.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나 치료기간 등이 부담이 적고, 전신적인 건강 상태 및 치조골의 상태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틀니 치료의 장점이다.

틀니가 좋은 지 임플란트가 좋은 지는 정답이 없다. 치과에서 정밀검사 후 정확한 진단을 받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제일 알맞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02)776-2882 (끝)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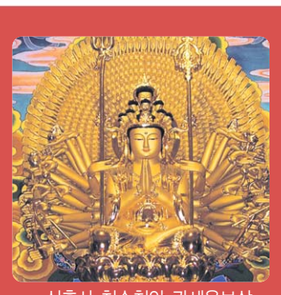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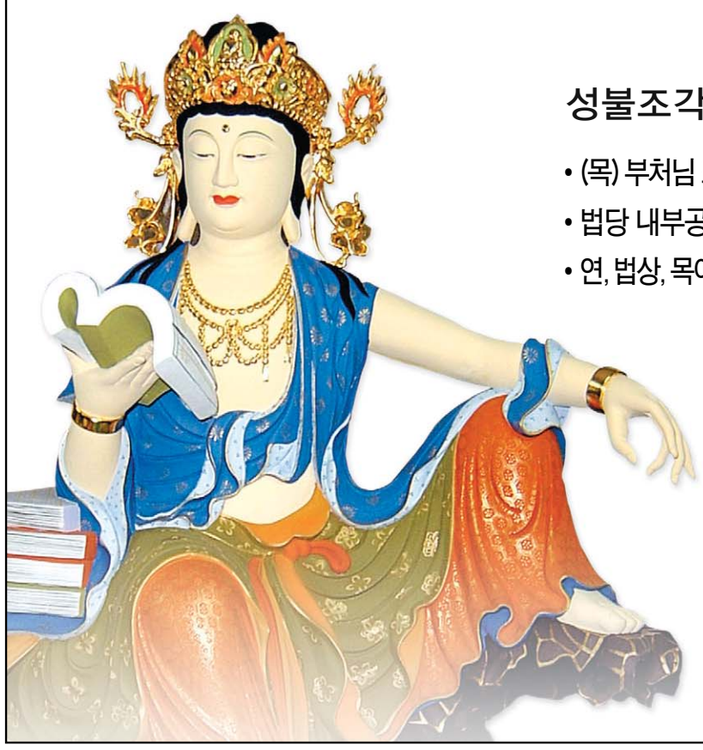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마음의 렌즈가 포착한 티베트의 영혼
'연화지정(蓮花之井)' 展 9월 12일까지

티베트 동쪽 마을 '캄(Khams)', 수행이 곧 삶인 이들의 신앙터전을 사진에 담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미술관에서는 9월 12일까지 성남훈 사진전 '연화지정(蓮花之井)' 展을 연다. 회색빛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인 현대 문명에 부처님의 경을 담은 신성한 오방색의 '타루초'와 '룽다'가 하염없이 펄럭인다. 마을 '캄'은 전 세계가 베이징올림픽 열광에 휩싸였던 8월 18일 중국군의 공격으로 140여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한 살상의 현장이다. 학식 높기로 이름난 수행승이 모여드는 마을로 1만여 구도자가 해발 3900고지 구릉지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세상의 흐름에 아랑곳 않고 살아간다.

그들이 기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십대 초반 7000여 비구니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연꽃의 우물을 가꾼다. 때로는 자신의 몸 세배가 넘는 목판을 등에 지고 집을 보수하는데 동참하며 문명의 이기에 초연하다. 사진작가 성남훈이 마음의 렌즈에 초점을 맞춘 풍경들은 세상을 향한 통찰의 메시지를 전한다. (02)418-1315 가연숙 기자

화폭에 드리운 '불이(不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상대적 개념을 여의는 불이(不二)의 법문을 화폭에 표현한다면?

'불이'를 테마로 천의 질감과 오방색을 활용해 캔버스에 비구상적 표현을 펼쳐온 이명숙씨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전시장에는 60여 작가의 개인 작품이 동시에 선보이며 아트페어를 통한 경매행사도 펼쳐진다. 2008한국전업미술가 미술제(Korea Professional Art Mall)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이사장 석종수)에서 기획했다. 예술가의 일상展을 통해 다양한 문화 상품을 만나는 것은 물론 빛을 매체로 한 공동 주제로 한국 현대미술을 재해석한 설치작품도 선보인다. (02)732-9820 가연숙 기자

'한옥의 새로운 이야기' 展 9월 2일부터 인사동 한옥서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온 (재)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는 안국동 한옥에서 9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생활속의 아름다움-한옥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 展을 개최한다. 2005년 목공예展에 이어 우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작품을 조명한다. 가구 만드는 목수 이정섭과 가구 디자이너 한정현의 작품으로 새로운 한식 공간을 연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08년 아름지기 전시는 오늘날 삶의 공간으로 재해석 되는 한옥 생활을 제안한다. (02)733-8375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시와세계' 공동 제정, 9월 23일 시상식

제1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이승훈 시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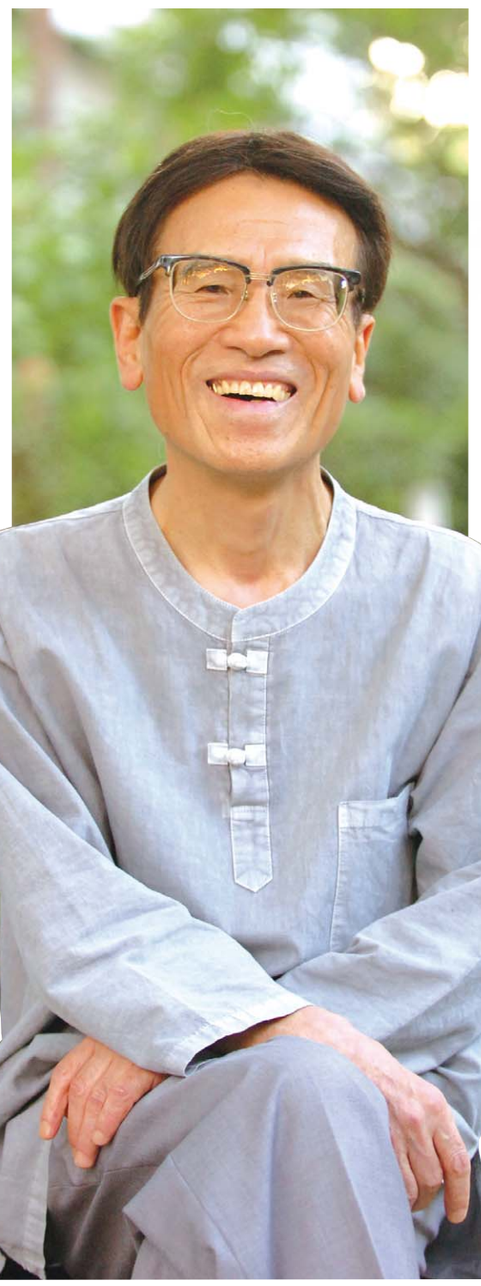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와 시와세계사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이상시문학상'(상금 2000만원)의 첫 번째 수상자로 이승훈 시인(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 선정됐다.

이상시문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배)는 8월 27일 오전 최종 심사를 갖고 이승훈 시인을 수상자로 만장일치 선정했다. 수상작은 <시와세계> 올 여름호에 발표한 '모두가 예술이다'.

제1회 이상시문학상의 수상자는 예심과 본심을 통해 선정됐다. 예심위원회(김서은 김미정 김이강 임연태 시인)는 4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왕성한 활동을 보인 시인 14명을 선정해 최근 2년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과 발간 시집 등에 수록된 시 가운데 본상의 취지에 부합되는 작품 10편씩을 1차 선별했다. 예심 위원들은 5차례 모여 선별된 작품들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다. 본심에 오른 5명의 시인 작품에 대한 본심에는 이근배 시인, 최동호 시인(고려대 교수), 김재현 시조시인, 장영우 교수(동국대 평론), 돈연 시인 등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이상 시인의 출생일인 9월 23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심사평

45년간 줄기차게 아방가르드적 시세계 천착

이상시문학상은 그 제정 취지를 "선불교적 감성과 직관과 사유를 지향하는 시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대시, 시조, 동시, 가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개방성, 지적 모험, 치열한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시인들을 격려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승훈 시인의 작품이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데 합당하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승훈 시인의 시는 본 상의 취지에 부합되고 시인은 최근에는 암 투병까지 하면서 시작의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평생 시를 위해 살아온 이승훈 시인이 이 시대 아방가르드 문학의 선두주자로서 한국 문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점도 높이 산다.

이승훈 시인은 1963년 <현대문학> 등단 이래 45년간 줄곧 아방가르드적 시 세계를 개척하고 연마해 왔다. 한국 시단이 서정적 전통을 주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 세계를 끝없이 천착해온 것도 본 상의 첫 수상자로 손색없는 이유라 하겠다.

<이근배, 최동호, 김재현, 장영우, 돈연>

수상작품

모두가 예술이다

이승훈

용인 공원 식당 창가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앞에는 정민 교수, 옆에는 오세영. 유리창엔 봄날 오후 햇살이 비친다. 탁자엔 두부, 말린 무 졸임, 콩나물 무침, 멸치 졸임. 갑자기 가느다란 멸치가 말하네. "생각해 봐! 생각해 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지 원! 멸치 안주로 맥주 마실 때 "이형은 목월 선생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생전에 보답을 못한 것 같아." 종이컵에 하얀 막걸리 따라 마시며 오세영이 말한다. "원래 사랑 받는 아들 따로 있고 효자 아들 따로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한 말이다. 양말 벗고 햇살에 발을 말리고 싶은 봄날.

"이군이가? 훈이가?" 대학 시절 깊은 밤 원효로 목월 선생님 찾아가면 작은 방에 엎드려 원고 쓰시다 말고 "와? 무슨 일이고?" 물으셨지. 난 그저 말없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다. 아마 추위와 불안과 망상에 쫓기고 있었을 거다. 대학 시절 처음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 "엄마야! 이군 김치 좀 주게. 이군 자취한다." 사모님을 엄마라 부르시고 사모님은 하얀 비닐봉지에 매운 경상도 김치를 담아 주셨다. 오늘밤에도 선생님을 찾아가 꾸벅 인사드리면 "이군이가? 훈이가? 와? 무슨 일이고?" 그러실 것만 같다.

<시와세계 2008년 여름호>

시인 이승훈은

아호 이강(怡江). 194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이승훈 시인은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나왔다. 시적 재능은 고교 시절, 강원일보 주최 도내 백일장과 '학원문학상'에 당선되며 일찌감치 드러났다. 1963년 <현대문학>에 박목월 선생에 의해 추천완료되어 등단했으며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한양대에서 석사과정을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이상시 연구'.

등단 45년 동안 줄곧 아방가르드적 시세계를 지켜 온 이승훈 시인은 첫 시집 <사물 A>(1969년) 이후 현재까지 19권의 시집을 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등 25권의 시론집과 5권의 수필집, 2권의 번역서를 냈다.

이승훈 시인은 교수직을 퇴직한 뒤 '숙명처럼 끌리는 어떤 힘'에 의해 불교에 귀의했다. "문학적 관심으로 만났던 <금강경>을 이제 구도의 측면에서 읽게 된다"는 시인은 요즘 지인들에게 불교에 귀의한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 "독실한 불자인 아내가 나의 귀의를 보고 '정신병원 침상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며 웃어 보이기도 한다.

고무신코 만 행 화
2008년 9월 5일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극게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보은사 석가모니후불탱화

보은사 신중탱화

보은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 011-743-5167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웃음보살 불등거사 <13>

구성 : 김흥인



반푼의 빚과 네 냥의 손해 [백유경(百喩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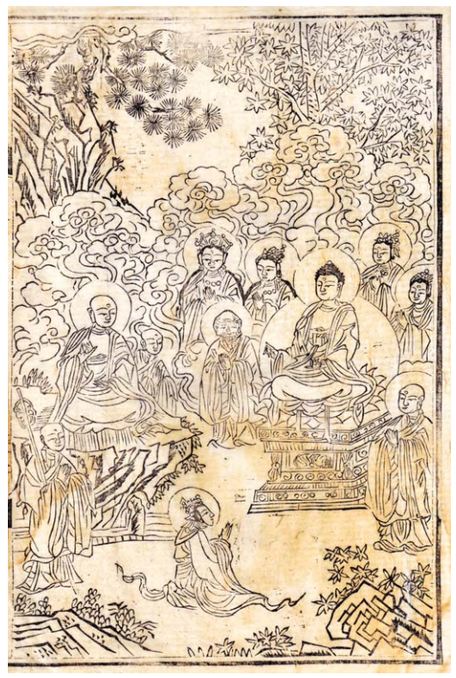


옛날 어떤 상인이 남에게 돈 반 푼을 빌려쓰고 오랫동안 갚지 못했다. 그는 빚을 갚으러 떠났다. 앞에 큰 강이 있었다. 뱃삯으로 두 냥을 건넸다.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시 강을 건너면서 두 냥을 또 써 버렸다. 결국 반 푼 빚을 갚으려다 도리어 네 냥의 돈을 손해봤다. 진 빚은 극히 적었으나 손해는 커 결국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다.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 작은 명예와 이익을 구하다가 도리어 큰 손실을 보게 되니, 제 몸을 위해 예의를 돌아보지 않으면, 현재에는 허명을 얻고 미래에는 괴로움의 갚음을 받는다.

옛 팔화의 세계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다

불찬지장(佛讚地藏)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불찬지장(佛讚地藏)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지장보살 위신력과 공덕을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찬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을 믿고 따라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권유하는 장면으로 이뤄져있다.

본문을 보면 "<지장십륜경>에서 이르길, 그때 세존이 제석천왕에게 알렸다. '너희들은 알지어다. 지장이란 보살이 있는데, 성문의 모습으로 이미 헤아릴 수 없이 오랜 대겁의 오탁악세 시절에 부처가 없는 세계에서 유정들을 구족하게 성취시킨 불가사의하고 뛰어난 공덕이 있었다. 지장은 모든 부처님 국토를 이익 되고 안락하게 해 유정들에게 일체 질병과 고뇌, 근심과 고통의 절실한 핍박을 제거하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보살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밥 한 끼 먹을 사이라도 그에게 귀의해 공양한다면, 모든 구하고 원하는 것을 속히 만족시킬 수 있고, 백겁을 귀의해 공양하는 것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경전 안에서 설한 바 말법 악세에는 사람들의 6근이 허물어져 흉으로 빚는 그릇과 같고, 허공을 보는 것이 배냇소경과 같아진다. 5욕은 돌밭과 같아 지혜가 싹트지 않으며, 10악은 구린내 나는 사람 몸에 때가 묻어 더러운 것과 같다. 이 경은 능히 샘물처럼 솟아나는 번뇌를 멸해 삼보가 오래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이어 부처님은 "내 법을 믿고 받아 실행하는 제자가 아래 세계에 이르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계행 없는 자를 비록 마땅히 벌로 다스려야할 지라도 다시는 속가로 돌아가지 않게 해 내 법을 부촉하고 호지하게 할 것이다. 국왕과 대신, 지방수령과 관리들이 오래도록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열 종류 공덕으로 이익을 주는 10륜(十輪)이라는 것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신하 관료를 골라 임용해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히 하고, 군인들은 적을 방어하도록 시키고, 사업을 닦아 경영하며, 공예를 길러 공급하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을 벌하며, 삼보를 세워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들의 10악을 끊고, 10선을 닦아 능히 삼보 종성의 법안이 긴긴 밤에도 멸하지 않게 해 악마와 원적들을 항복시키고,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한다."

본문에서는 한국 불자들이 수행방편으로 많이 선택하는 지장신앙 공덕과 의의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됐다. 이제 어렵고 힘든 불황의 그늘을 지장보살님 원력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고 의지해 지장십륜 공덕을 바로 누리는 불자들이 되어야겠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스스로 길임을 아는 것은…

길은 길을 묻지 않고 길은 길을 가지 않네
스스로 길임을 아는 것은
아무런 길도 묻지 않고 아무런 길도 가지 않네
오직, 사람만이 길을 묻고 길을 묻는 것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겸손이 살피는 자에겐
만물이 스스로 길이 되도다.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스님출연 ◆ TV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VJ특공대 무한지대Q
MBC 화제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6mm 세상탐험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생방송 투데이
YTN 전국 네트워크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불교방송 BBS 초대석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혜철스님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혜철-

전국검색 개인정보보호

저(혜철)는 년간 약 30쌍 이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혼성사 시키고 있습니다.



8월 19일~8월 21일 베트남을 방문 하신 혜철스님(하나플러스원 후원)



신속 정확 신뢰

프로그램의 기능
계약관리
회원관리
희망정보관리
회원병력관리
회원매칭관리
성혼자관리
불량회원관리
주소록관리
매니저관리
홈페이지정보관리등
결혼상담소 필수품!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년)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선물공양
청정서해바다 불심 무가공 멸치
간장숙성 멸치는 기름으로만 볶아 설탕을 약간 뿌려 잡수세요
특허출원. 1kg 25,000원
080-510-2202
불교신협 충남 아산시 도고면 침통리 245-4번지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빙의퇴치 비법전수
신병 · 불치병 고쳐드림
30년 경력 혜봉스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무병건강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1.구궁 당 주역/간단 비법 전수
2.난치병(스트레스,비만,혈압,당뇨,암..) 근본치유 예방, 무병 건강 양생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인촌 신불정사 무구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 불공의식(범음범패)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
각종불공
(바라춤, 승무)
010-2200-8176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재혼·국내·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02)464-8305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흥망성쇠 성질감정 조절지도 훈련 풍수명당. 시험합격 기도터 성지 운의흐름 개운시기 전생 우울증세 장단기수행지도 단체 개인훈련 불교강좌. 출가희망자 선발 공양주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사찰 같이 하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명리학의 대가(30년) 수강생을 모십니다
(속성 3개월 과정 / 철학원 운영 중)
011-9344-2048

경관이 수려한 도량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처사님을 구합니다
(통영시 한산면)
055)649-7077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3)981-0995

약사기도도량 약천사에서 같이 도량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행자 구합니다
(30대 후반 40대 초)
▷전남 구례군
061)781-6328
017-621-632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경주
011-9562-4457

황토사찰에서 행자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불사 같이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법랍 25년,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명리학,침구학,최면학)성업중
부산 경남에서 하고자 함
010-2945-77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335-2576
011-270-2675

산세좋은 곳에서 함께 하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11-639-0075

50대중반 비구승입니다
부전소임원합니다
010-8537-010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비구 기도스님 모십니다
▷마산
016-428-6665

신심있으신 거사님 공부, 요양, 수양 하시며 절에 소일 좀 도와주실분 요합니다
▷서울 도봉산 성불사
02)954-9848

행자(35세아하) 및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17-570-2050
011-388-627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010-3191-9668

절이나 절 지을터 싸게 보시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1-307-4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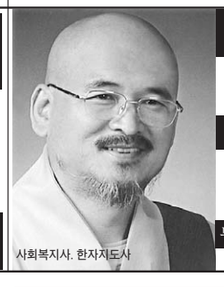
인연있는 도량을 찾습니다
(해수 54세 비구승)
010-8634-3113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천인사)
031)773-7746

역학공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사암침술 즉효요법
● 개강 : 9월 5일(매주 금요일반)14:00 ~ 주 1회
9월 6일(매주 토요일 주간반)14:00 ~ 주1회 / (야간반)19:00 ~ 주 1회
9월 7일(매주 일요일반)14:00 ~ 주 1회
● 과정 : 1. 기본과정(경락진다,정확한 취혈,사암침 즉효요법100)
2. 전문가 과정(카이로 푸락틱, 맥진법, 사암침 즉효요법150)
● 특전 : 1. 개인 및 책임지도로 비법전수 2. 100% 실습위주 교육 3. 교재 무료
4. 재수강무료 5. 중복 수강환영 6. 회원 무료치료
7. 저자 직강(사암침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즉효요법)
● 공개강좌 : 매주 수요일14:00 ~ 주간(일반 회원 대상) / 20:00 ~ 야간(직장인, 의사님 대상)
● 추천 : 충남 청양 신 충수 의학박사께서 회원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 상담 : 02)747-9136, 011-307-2975 (종로 3가 국민은행빌딩 401호)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麟"막힐 을,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탈종공고
• 사찰명 : 극락정사
• 주 지 : 석정 (조운행)
• 주 소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100-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본문 전체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시청.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동양 사주학 수강생 모집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동양사상의 진수인 천문 · 지리 · 인사의 원리를 접하여 정통역학의 전문적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전문가, 경영자, 지도자, 인사업무관계자, 상담사, 대학생, 주부, 퇴직자, 일반 직장인 등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미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시대에 전문가양성을 위하여 최고 권위 있는 교수진을 모시고 동양역학의 전문성 강좌를 개설합니다.

개설강좌

과목	요일	시간	개강
사주명리	화요반 / 일요반	13:30~17:30	9월 9일
기문둔갑	화 / 목	18:30~20:30	9월 9일
명리전문반 (자평.적천수)	화요반	11:00~13:00	9월 9일
육 효	목요반	10:30~12:30	9월 12일
육효전문반	금요반		
육 임	수	(주)13:30~16:30 / (야)18:30~21:30	9월 10일
타로카드	금요반	13:30~16:30	9월 12일
꿈 해 몽	목요반	13:30~16:30	9월 11일

강사 ★ 명리 : KBS,SBS방송다수출연.(현)대학교교육원명리학교수직강
★ 기문 : 노원기문둔갑정경저자 특별초청 청주박선생직강
★ 꿈 : 꿈미래열쇠저자 특별초청 현오스님직강
★ 각 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직강 및 책저자강의
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 5번출구 낙원상가 제일은행앞
국제역학진흥원 02)3676-4500 Fax 02)3676-870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대 가 람) 안 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자연석 높이 15 M,가로 50M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기타건물 400평(6동)
● 대지 2500평, 임야 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 유곡, 주변 직벽암반 경관 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 가능(12M 도접)
● 가액 : 6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포교원 및 불교문화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1호선 구일역 5분거리
● 평수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살림집 40평 (옥상 150평)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 도심포교 및 각종 불교문화사업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억원 월120만원 / 시설비 1억 8천 (보시 절충)
02)853-6010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당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3개,주방1개,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임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010-6582-258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역곡동
온수, 역곡역에서 10분거리
● 법당 2층, 약 20평
● 방1, 화장실
삼존불 및 각단탱화, 도시가스
● 보증금 500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2)345-3779
010-451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용덕
(의령읍 5분내 거리)
● 대지 180평, 법당 25평, 요사 25평
● 가액 : 7,000만원
※마당까지 차량진입 가능
※20년된 사찰, 조계종 스님 환영
010-7748-8900
055)572-503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대흥동
● 평수 50평 3층중 2층
● 법당 방3 해우소2
공양간 등 아파트식구조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54)281-114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면
면소재지 바로옆동네
● 100여가구 사는 마을 맨
뒷집(산자락)
● 대지 : 350평 임법당 32평
(살기좋은곳)
※직접 방문해 보시면 첫눈에 ok
● 가액: 7000만원
011-621-9549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전철역 옆
● 평수 : 약 4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
011-526-0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심야 보일러
010-2892-9877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사찰터
● 평수: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관리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2억 7천만원(급매)
017-570-16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화소 IC 3분거리 도로접
● 대지 680평,건물 25평
현 임법당 사용중
● 산밑 양지바른 암자터
● 가액 : 7800만원
010-5015-3827
011-463-227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 논현역 2번출구
1분거리
● 4층건물중 4층(옥상사용)
● 보증금 2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유동인구 많은 최고
요지자리, 역학상담하면서
포교하실분
02)516-277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합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임안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3천5만원(급매)
054)858-9628~9
019-377-896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경주 현곡면 상구1리)
● 대지 120평. 1층 요사채,
2층 20평(조립식)
● 별도 요사채 기와집,산신각 1채
● 즉시법회가능
● 받을가격 : 7천 5백만원
010-6288-977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사거리 부근
지하철 내년 완공예정
출입구에서 도보 2분거리
● 총평수 87평, 주차장 42평
● 2층법당, 1층 요사채, 방4칸,
거실1, 미니다락
● 삼존불,탱화및비품일체포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809-5006(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대지 200여평, 전 320평
합 535평
● 임법당,삼존불 등 시설완비
생활권
● 즉시법회가능, 도량신축가능
마당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 2억5천(절충가)
041)553-2108
011-794-4042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 대지 : 568평, 건물 3동(가건물)
● 특징 : 계곡접, 저수지
노송 풍수, 수려함
● 교통 : 대구시에서 20분거리
성주대교 7분거리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절충)
017-804-1234
053)627-1234

사찰 운영하실분

● 양도가 : 5억
011-269-72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문화재 있는 고 사찰터)
일죽 IC에서 안성방향 5분거리
● 대지 : 150평, 임법당 40평,
실사용평수 500평,
산신각,용궁 기도터 있음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767-4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31)405-4181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입암 양항 전 320-1
● 입지 : 군도접 약수터 개발지역 주변,
상수도 자연수 세멘포장 도로접
● 가액 : 야산 및 전 1000평 당 5만원
● 위치 : 경북 영양읍 하원리 산 42-1
● 입지: 읍소제2분 지방도 반변천접
● 가액 : 조경된 산3800평 당 1만원
영양읍 시방사 주지 덕월합장
011-538-221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 임법당 20평
● 산세좋고, 큰 대로변 인접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10만원 (권리금 500만원)
가격절충 가능
010-7158-731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장 지하철역 5분거리)
● 평수 15평, 법당,방1,주방,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18만원
시설비 7백만원
● 역학보시는 스님이나
보살님 최적지
051)516-270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가장 대변 입구 2주공 앞
● 2층 건물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후 절충 가능
051)721-8359
010-4870-835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755평, 법당 20평
요사채, 상하채 방4개
● 주차시설완비 큰창고
● 양도가 : 2억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8507-9909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대지 75평
● 목조한옥 30평
● 세면장, 화장실 별도
● 사용가능한대지 150평
● 가액 : 1억(절충가능)
010-7446-0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동사무소 옆
(팔도시장)
● 건평:45평
● 즉시 법회 가능하며 살림할수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품비 700만원
(불상, 탱화, 살림집기 일절)
011-9798-846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덕천 1동 위치좋음
● 평수 : 약 20평
● 삼존불, 인등, 영가위패
● 가액 : 답사후 절충
016-403-0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릉 2리 395번지 용담사
● 옛날 구옥 2채,산신각,미륵전,
와불,삼존불
● 평수 : 400여평 도지 쌀한가마
● 가액 : 2000만원(건물만)
031)642-8345
016-9800-8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천구 목동 4거리 근방
(버스정류장 1,2분)
● 단독 2층 20평(1층도 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비구니 스님 환영
010-7287-4936
010-2679-11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011-393-001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전철개통공사완료
● 사정상 급 양도
● 상가 3층중 2층 50평가량
● 법당,주방,거실,방2,욕실2
● 삼존불,후불탱화,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A(완벽함)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
010-3116-1992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 대지 600평, 건물 150평
● 납골당 시설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 산좋고 약수 최고, 도심속 산사
명당속의 기도도량 ※중개인사절
● 도심포교에 큰 뜻이 있는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010-6591-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 부지 : 오천여평
● 시설 : 대웅전,자장전,관음전,삼성각,설송당,
자양당,요사채(건출 총 170여평) 잘 지은 집
● 환경 : 좌청룡 우백호 노적봉이 휘감은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의 명당자리
● 계획 : 실버복지원 납골당-토목공사 완료
● 가액 : 시세 50% 직거래, 답사 후 절충 결정
055)356-608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 대지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48평)방5,거실,욕실,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0-3382-7921

토굴 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비슬산 자락
● 부지 : 약 1400평. 가옥 신축 황토집
● 특징 : 연못가, 청정계곡
● 가액 : 4억 5천만원
010-4782-2112

임 법 당

● 위치 : 양산시 통도사부근
● 대지 32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5평, 방3, 거실, 공양간
2층 법당 20평 친견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아미타 지장관음신중
● 텃밭있음. 절앞 버스정류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집기일체 양도, 시설비 2200만원
010-4640-4747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심가 30년된 아담한 암자
● 보증금 없음, 월세 없음, 시설비 4000만원
● 큰도로에서 150미터. 사용기간 10년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45평 2층
● 보증금 1000만원,월25만원/시설비 절충
010-3167-5225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⑮

냄새의 호오는 제육의식 분별의 모습

云何名聞香中修觀 應作是念 我今聞香虛?無實 所以者何 根塵合故 而生鼻識 次生意識 强取香相 因此則有 一切煩惱善惡等法 故名聞香 反觀聞香之心 不見相貌 當知聞香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무엇을 냄새를 맡는 가운데서 관 수행을 닦는 것이라고 하는가.

마땅히 '내가 지금 맡는 냄새는 허깨비와 같고 속임수여서 실재가 없다'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근과 향진이 화합하여 비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시에 제육의식이 일어나 향기의 모습을 억지로 취한다. 이로 인해 일체 번뇌 선악 등의 법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냄새를 맡음이라고 말한다. 냄새를 맡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그 실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알아야 할 것은 냄새를 맡는 것과 일체법은 끝내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관 수행을 닦는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좀더 상세하게 서술해 보겠다.

냄새를 돌이켜 관찰해보면 그것은 실재가 없는 허깨비와 같다. 그 이유는 비근과 향진이 화합하여 비식과 동시에 일어나야만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향진을 훌륭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선법을 이룰 수 있다.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천상에 있는 향적세계에서는 향기로운 밥을 먹으면서 불사를 이루는데, 그것을 향광장엄(香光莊嚴)이라고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향진을 훌륭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향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지어 삼계생사로 끝없이 유전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제육의식이 분별하기 때문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분별은 식심 때문에 일어나고 식심은 비근과 향진이 화합하여 일어난다.

만일 비근과 향진이 인연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비식은 일어나지 않으며 비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육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에 대한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다면 일체 선악 등의 법도 따라서 없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비근과 향진이 인연으로 화합하면 허망하게 분별이 일어나고 화합된 인연이 분리되면 허망한 냄새라는 명칭도 소멸한다는 점이다.

생멸을 허망이라고 말하고 허망이 소멸한 자리를 진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돌이켜 관찰해보면 냄새를 맡는 마음의 실체가 끝내 어느 곳에 있겠는가.

냄새는 내 외 중간 그 어느 곳에도 방향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이 마음의 실체는 내적으로 비근에 있지도 않고, 외적으로 향진에 있지도 않고, 그 중간의 비식에도 있지도 않아 방향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냄새를 맡는 마음과 냄새는 그 본질이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고 상대적인 의존관계마저 단절하여 끝내 공적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을 관 수행이라고 한다.

四舌受味時修止者 隨所受味 卽知如於夢幻中得味 若得順情美味 不起貪著 違情惡味 不起嗔心 非違非順之味 不起分別意想是名修止 云何名舌受味時修觀 應作是念 今所受味 實不可得 所以者何 內外六味 性無分別 因內舌根和合 則舌識生 次生意識 强取味相 因此則有 一切煩惱善惡等法 反觀緣味之識 不見相貌 當知受味者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네 번째로 설근이 미진을 받아들일 때 지 수행을 닦는 것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설근이 맛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은 꿈과 허깨비 속에서 맛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만일 내 감정에 순응하는 아름다운 맛을 본다 해도 탐애의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감정을 위배하는 싫어하는 맛을 본다 할지라도 진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감정을 위배하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는 맛을 본다 할지라도 의식의 관념으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설식을 통해서 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무엇을 설근으로 맛 볼 때 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마땅히 '지금 받아들이는 맛은 그 실체를 얻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육미와 외적으로 존재해있는 육미는 본질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 없는데, 밖으로의 미진이 내적인 설근과 화합하여 설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제육의식은 동시에 일어나 맛의 모습을 억지로 취하기 때문에 일체 번뇌 선악 등의 법이 있게 된다.

미진과 설근이 화합하여 일어난 설식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실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맛을 보는 것과 일체법은 끝내 공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두고 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싱거운 등의 맛에서 모두 지관 수행이 가능하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종일 음식을 먹었건만 단 한 알의 쌀알도 먹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맛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설근은 미진과 인연으로 화합하여 설식이 일어나며 설식은 설근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설근은 설식으로 인해서 맛을 보게 된다. 따라서 맛을 보는 주체를 설식이라고 한다.

설식이 일어나면 설근과 동시에 일어나는 제육의식이 그 맛에 대한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 설근은 맛을 분별하는 주체이고 미진은 분별의 대상이다. 이와 같이 설근과 미진이 인연으로 화합하기 때문에 설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체로 설식은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서 일곱 가지 조건이 화합해야만 일어나며, 안식은 아홉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식은 여덟 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일어난다.

그 이유는 해와 달의 광명이 없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도 맛을 볼 수 있으며 걸림 없이 툭 트인 공간이 없다 해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식은 아홉 가지 인연 가운데서 공간의 인연과 광명의 인연을 떠나서 그 나머지 일곱 가지 인연만 화합해도 일어날 수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팔계(十八界)

(1) 십팔계의 성립근거

십이처가 주로 물질적인 색법(色法)의 분류인데 비하여 십팔계(十八界)는 심법(心法)을 추가하여 색(色) · 심(心)을 다 포함하는 색심제법의 분류법입니다.

그렇다면 십팔계란 무엇일까요.

십팔계는 십이처, 즉 육근과 육경에 인식작용의 주체인 육식을 합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팔계는 근(根) 경(境) 식(識) 등 세 가지가 화합해서 일어난 것으로, 무엇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根]과 인식의 대상[境]과 인식의 작용[識]이 필요합니다.

우선 십팔계를 나열하여 그것이 성립된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안식이 일어나려면 앞에서 '십이처법문' 에서도 언급했듯이 반드시 안으로는 육근 가운데서 안근계(眼根界)를 의지하고 밖으로는 육경 가운데서 색경계(色境界)를 바탕으로 하여 이 둘의 조건이 서로를 증가 향상시키면서 안식계(眼識界)를 생장해야만 비로소 안식은 대상사물의 색깔을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식도 안식처럼 안으로 이근계(耳根界)를 의지하고 밖으로는 성장계(聲境界)를 바탕으로 깔아야만 이 둘이 하나로 합해진 '처' 에서 이식계(耳識界)가 생장하여 모든 차별적인 소리들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식은 비근계(鼻根界)와 향경계(香境界)가 합치해야만 그 처소를 의지하여 비식계(鼻識界)가 생장하여 모든 냄새를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식은 설근계(舌根界)와 미경계(味境界)를 의지하여 이 둘이 하나로 합치된 처소에서만 그것을 바탕으로 설식계(舌識界)가 생장하여 모든 맛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식은 신근계(身根界)와 촉경계(觸境界)를 동시적으로 의지한 처소에서 신식계(身識界)가 생장하여 모든 사물에서 촉감, 즉 사물의 강도를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근계(意根界)는 이상에서 열거한 전오식(前五識)이 각자의 분야별로 인식했던 부분적인 대상색법과 그에 국한된 주관인식을 두루 빠짐없이 종합하고 그것을 다시 의지해서 의식계(意識界)가 생장해야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색법과 심법, 즉 일체의 법경계(法境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사물이고 어떤 심리상태라는 것까지 명료하게 구별짓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宗團 名稱 變更 公告

● 舊名 : 한국 선불교 삼매종
● 新名 : 大韓 禪佛敎 曹溪宗

금번 종회의원 정기총회에서 宗團名을 변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이에 公告 합니다.

변경일시 : 서기 2008년 8월 10일
총 본 사 : 055)673-3474

大韓 禪佛敎 曹溪宗 總本山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216번지 영락사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 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오직 하나의 성품이 있을 뿐, 얻으면 깨달음이라”

<17> ‘지관통례(止觀統例)’의 저자 양숙(梁肅) 거사

‘중용’ 사상과 천태 지관 결합, 불·유 회통 앞장
피난지 강남서 불교 접해… ‘고문운동’에 큰 영향

당조(唐朝)의 불교는 흔히 ‘종파불교’로서 개관한다. 당대에 종파불교가 고도로 발전해 삼론 · 천태 · 화엄종 등의 전통적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에서 선종과 염불종, 밀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파가 출현해 명멸했기 때문이다. 제종파의 출현과 흥성은 각 종파의 교의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제종파의 출현은 또한 각 종파 교의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게 됐고, 나아가 한 종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불교를 통합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제종의 비교는 다시 중국 고유 유 · 도 양교에까지 이르러 삼교비교론이 출현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불교적으로는 ‘제종일치(諸宗一致)’의 경향이 출현했고, 유 · 도 양교에서는 ‘삼교일치(三敎一致)’의 기치를 발현시켰다.

중당(中唐) 시기에 화엄종의 규봉종밀(圭峯宗密) 대사는 ‘제종일치’와 ‘삼교일치’를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전에 유가(儒家)에서 불교 심성(心性)에 대한 이론들을 흡수해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가의 사상을 결합시킨 거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다. 거사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양숙(梁肅), 이고(李翺), 류종원(柳宗元), 류우석(劉禹錫) 등 유가에 능통한 학자들로서, 당대(唐代) 거사불교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양숙(753~793)은 자(字)가 경지(敬之)이고, 안정(安定; 현재 甘肅省 涇川)사람이다. 유학자로서 유명하고, 특히 당대에 일어난 ‘고문운동(古文運動)’의 직접적 동인의 제공자였다. ‘고문운동’이란 육조(六曹)시대 화려하고 형식적인 ‘변려문’에 대해 자유로운 문체를 주창하는 것으로 한유(韓愈) · 유종원 등이 주도한 운동이다.

<구당서(舊唐書)> 한유의 전기에 따르면, 양숙 거사의 학문이 뛰어나 유림(儒林)에서 중시하여 한유 등의 무리가 거사와 어울렸으며, ‘고문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당척언(唐摭言)>에 의하면 고문운동을 주도했던 한유 등이 3년 동안 양숙 거사에게 지도받았다는 사실은, 한유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문운동’이 양숙 거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유는 당시 불교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유학자였으나, 양숙이나 유종원 등은 철저히 불교를 신앙하던 거사였다. 철저한 배불론자인 한유의 제자인 이고(李翺)는 스승과 반대로 불교에 의지한 사상을 보였다. 한유는 “나의 도가 시들고, 이고 또한 도망 가버렸다”고 한탄했다.

양숙 거사는 태자시독(太子侍讀)과 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의 고관을 지냈다. 거사의 불연(佛緣)은 어릴적 전란으로 강남에 피난했을 때 불교를 접하며 시작됐다. 당시 강남에는 천태종이 활발히 활동했던터라 거사는 형계담연(荊溪湛然)에게 불교를 사사하며, 천태교학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10에 따르면, “일찍이 형계 대사에게 천태의 도를 배워 심요(心要)를 얻었다. <지관>의 문의(文義)를 널리 전하고 보는 사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6권으로 줄였다. 또한 <통례(統例)> 찬술 등을 통해 <지관>은 세상을 구하고 도를 밝히는 책이라 했다. 다시 대사를 위해 <전론(傳論)>을 찬술해 교를 전하는 대통(大統)을 논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관>은 바로 천태지의 대사의 <마하지관>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사는 그를 6권의 <천태지관>으로 줄여 출판했다. 송대 천태종 승려 자운준식(慈雲遵式)은 <천태지관>이 이론적 ‘관(觀)’에 편중해, 선수행 실천인 ‘지(止)’가 소략됐음을 지적하길, “문장은 비록 간결하고 핵심적이나, 수행의 모습(修相)이 결여됐다”고 표현했다.

<통례>는 거사의 <천태지관통례(天台止觀統例)>를 가리킨다. 이 책은 집중적으로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가 회통을 논했다. <전론>은 <수선도량비명(修禪道場碑銘)>으로 거사는 천태 전교(傳敎) 계통을 서술했다. 또한 담연의 재가제자로서 <형계대사비(荊溪大師碑)>도 찬술했다.

양숙 거사의 동문인 어사(御史) 최공(崔恭)은 <양숙문집> 서문에서 “뿌리로 돌아가 명을 회복함[歸根復命]이 일이관지(一以貫之)해 <심인명(心印銘)>을 찬술했고, 일승(一乘)에 머물러 법체(法體)를 밝혀 <삼여래화찬(三如來畵讚)>을 지었다. 법요(法要)와 권실(權實)을 알아 <천태선림사비>를 지었고, 가르침의 본원에 통달하고 경지(境智)를 써서 <형계대사비>를 지었다. 커다란 가르침의 말미암음과 불일(佛日)의 미망(未忘)이 다해 이에 이르렀다”고 거사를 평했다. 이외에 거사의 작품은 <천태법문의(天台法門議)> <유마경략서(維摩經略疏序)> <열반경소석문(涅槃經疏釋文)> 등 수십 편에 달한다.

<천태지관통례>는 양숙 거사의 불교, 즉 천태의 심성론을 유가와 결합시켰다. <통례>의 첫 부분에서 거사는 “지관이란 무엇을 함인가? 만법의 이치를 이끌어 실제(實際)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실제란 무엇인가? 성품[性]의 근본[本]이다. 물(物)이 회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혼미함[昏]과 움직임[動]이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혼미함을 비춤[照昏]’을 ‘밝힘[明]’이라 하고, ‘움직임을 멈추게 함[駐動]’을 ‘고요함[靜]’이라 한다. ‘명’과 ‘정’은 지관(止觀)의 체(體)다. 지관이라는 원인이 있어 지정(智定)이라는 결과가 있다. (중략) 성인(聖人)은 미혹함이 가득해 뜻을 상하게 하고, 움직임이 가득해 방향을 잃음을 보아 그치게 하고[止], 그를 관(觀)하게 함이다. ‘고요함[靜]’으로 그를 ‘밝힘[明]’이니 그 움직임을 능히 고요하게 하고[靜], 고요함은 능히 밝힘[明]이다”라고 말했다.

양숙 거사가 용어만으로도 불교와 유가를 결합시키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설명을 하자면, 유가의 <중용(中庸)>에 “천명(天命)은 성품[性]을 이름이요, 성품을 따름[率性]은 도(道)라 하고, 도를 닦음이 가르침”이라 했다. 즉 인성(人性)의 본원이 천명에 있는 것이요, 그 성품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화시켜 도를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품을 따라 행함[率性而行]’을 가리켜 ‘자성명(自誠明)’이라 하고, ‘도를 닦고 교화함[修道而敎]’을 ‘자명성(自明性)’이라 했다.

이를 <중용>에서는 “성(誠)이란 하늘[天]의 도이고, 성에 이르려는 것[誠之]은 사람의 도다. 성이란 힘쓰지 않고도 꼭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어지니, 도와 하나가 됨이 성인이다. 성에 이르려는 것은 선(善)을 택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표현했다.

<중용>의 사상과 천태 지관을 결합시키려 했던 것이 양숙 거사의 의도였다. 거사가 말한 ‘지관이란 실제를 회복함’은 바로 ‘자명성’과 ‘성에 이름’을 통하여 ‘천명’의 ‘성품’에 도달하려는 유가의 사상을 포괄한다. 거사는 ‘움직임을 멈추게 함’과 ‘혼미함을 비춤’의 지관을 통해 명정본성을 회복하는 ‘복성명정(復性明靜)’의 이론을 선보였다. 당연히 이런 사상의 밑바탕에는 분명하게 ‘일념무명법성심(一念無明法性心)’의 천태학이 작용했다.

양숙 거사는 <통례>에서 또한 “오직 하나의 성품[一性]이 있을 뿐으로, 얻으면 깨달음이요, 잃으면 미혹함이다. 오직 하나의 이치[一理]가 있을 뿐으로, 어리석으면 범부이고, 깨달으면 성인이다. (중략) 이치[理]는 본(本)을 이르는 것이고, 자취[迹]는 말(末)을 이른다. 본이란 성인(聖人)이 도달하는 경지이고, 말이란 성인이 보인 가르침이다. 본으로 자취를 드리우니, 바로 크고[大] 작음[小]이 되고, 통함[通]과 다름[別]이 되며, 돈(頓)과 점(漸)이 되고, 드러남[顯]과 숨김[秘]이 되고, 방편[權]과 실제[實]가 된다. 자취를 좇아 본으로 돌아오면 바로 하나가 되고, 큼이 되며, 원(圓)이 되고, 실(實)이 되며, 무주(無住)가 되고, 중(中)이 되며, 묘(妙)가 되고, 제일의(第一義)가 된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깨달음과 미혹, 범부와 성인, 이치와 자취, 본과 말 등은 모두 ‘하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을 연상시킨다.

거사의 ‘일성(一性)’은 <기신론>의 ‘일심(一心)’과 상당한 개념이며, 논리의 전개 또한 유사하다. 거사는 일심이문의 논리로서 불교와 유가의 심성론을 더욱 분명하게 결합시켰다.

양숙 거사가 불교와 유가의 심성론을 결합시킨 것에 대해 찬영(贊寧)은 <송고승전> 형계담연전에서 “<시경>에 ‘까치가 둥지 지으면 비둘기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말은 양공(양숙)이 불교의 이굴(理屈)에 깊이 들어왔음을 이르는 말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양숙 거사의 심성론에 있어서 불교와 유가를 결합한 ‘복성명정론(復性明靜論)’은 보다 발전돼 이고 거사의 ‘복성설(復性說)’로 이어진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그림 · 김홍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 사 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 사 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 영 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 리 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 사 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 사 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너를 이끌어 가는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마음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질문: 요즘 Cable TV를 보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영가를 보고 영가의 말을 전해 주며 떠나지 못한 영혼을 천도까지 시켜 주어서 마치 기존의 종교에서는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자처럼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진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부의 방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고통과 경계가 왔을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자기를 밝히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은사 스님이 맏형과 막내, 이렇게 제자 둘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 두 형제가 일 주일 장이 설 때마다 보따리 짐을 해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물건을 팔러 나갔는데 꿈을 꾸니까 불에 타서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렸지." 이렇게 말을 해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맏제자가 생각을 하니까 '저 스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미거한 저 중생은 어떡하면 좋은가.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거는 아주 대도의 근기가 충만한 사람이라야만이 저 소리를 알아들을 테니 저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살이 또 와서 맏형 스님한테 또 청을 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걸 도저히 모르겠으니 스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이 밤에 물을 동이 동이 떠다 놓고 울타리를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닭이 울 때까지 솔 이파리로 물을 축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울타리를 할 때에 솔 이파리나 이런 걸로다가 전부 다 울타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또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깐 막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었다 이겁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불에 타 죽지를 않고 산다고 하셨는데도 저희 마음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안타깝고 죽겠습니다." 하니 막내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그래?" 하면서 반말로 쭉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에다 잘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릅니까, 전부 똑같습니까? 대답들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겠죠, 근기에 따라서니까. 일러 줘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거? 아까 그 세 스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여러분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일러 줬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믿어지질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상을 차려서 시식을 지내는 사람하고 그렇게 물을 뿌리는 거하고, 그것도 죽고 사는 건 생각에 따라서 있다 했으면 그게 퍼뜩퍼뜩 알아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도는 벽도 없고 문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 앞에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하는 말이 그게 뜻이 얼마나 깊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 자체의 뜻을 한데다 떨어트린다면 여러분은 한생각에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이 이루는 것만 도가 아니라 능력을 기르면 내가 용(用)을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스스로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용을 일부러 배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생각나면 움죽거려지는 것이 용인데 뭐 그렇게 용을 따로 배우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은 시식을 지내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가난하긴 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몰래 불렀습니다. 몰래 불러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아들이 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밤새도록 소나무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옷감을 사 가지고 가서 팔 양으로 여관엘 들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주막에 들렀는데, 주막에 불이 난 겁니다. 피곤하니깐 그냥 잠이 들어서 자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그냥 물을 끼얹으니깐 펄떡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불이 그냥 뺑 돌았어. 그래서 보따릴 들고 그냥 막 튀어나와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잘했다고 해야 할 텐데 은사 스님이 불러다가 얼마나 패 줬는지 몰라요, 은사 스님이.

"이놈아!" 그거를 왜 가르쳐 줬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세세생생에 그러한 짓만 하고선,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걸로만 갈 테니,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인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만약에 그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잘못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 이건 방망이로다가 그저 막 패는 겁니다. 그래서 디굴디굴 구르다가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옳지 옳지, 알았다. 스님이 방망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이구, 이런 거를 가르쳐주시는구나." 하고선 알았다고 하늘을 보고 웃고 그냥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은사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이제는 알았다니 됐다." 그러는데 동생 하나는 "흥, 둘이 잘 노는군." 이러고선, 그냥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냥 픽 돌아서서 홀쩍 가거든요. 가니까 은사 스님이 또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어디로 가느냐? 지금 마당이 더러워서 죽겠는데 마당을 쓸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이놈." 하고 악을 쓰니까 "쓸 거예요!" 그러고선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아 했을까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몽둥이로 막 팼는데, 막 찢기고 그러면서 내리구르다가 "아이구, 알았다." 고 그랬는데 뭐를 알았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뭘 알았다고 했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론으로만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첨단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 하시는 데에 학술적으로나 경을 봐서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아주 거론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선의 도리는, 선법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포함해서 돌아가면서도 '무(無)' 예요. 없고 없고 또 없어요. 그 없고 없고 또 없는 데서 무엇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힌트를 주기를 공했다, 잘나생활이다, 한 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 하나 잘 먹으면 한생각에 뛰어넘어지고, 마음 하나 잘못 쓰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가죠. 나라는 조건을 버린다면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도 딛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딛을 수 있어요. 그 아래는 송장의 뼈다귀가, 해골이 수두룩하게 있어도, 떨어져서 죽은 송장들이, 해골바가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내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 발자욱을 떼어 놓을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려면

질문: 얼마 전 친척 중의 한 분이 몇 년을 산소호흡기로 전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임종의 순간 아프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떠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요?

답변: 여러분이 왜 몸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몸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조절을 잘못하기 때문에 대표인이 못되고, 선장이 못되고, 나침반이 틀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소임 맡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갈 바를 모르고 길을 헤매고 고아가 돼서 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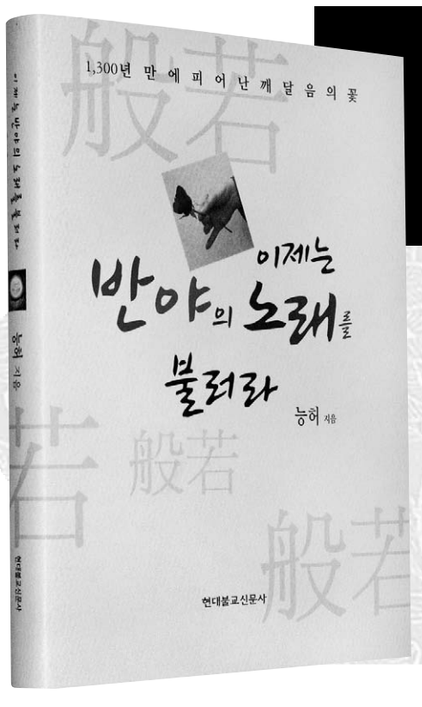
☞26면으로 계속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般若



1,300년 만 에 피 어 난 깨 달 음 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buddhanews.com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도 마음을 아꼈다 뭐 하느냐!

☞25면에서 계속

매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이 마음 안의 중생들도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선장에게 기대를 걸고 지금 이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하고 나갔을 때 바로 내 이 소임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파가 잘못됐다면 바로 내 한생각에 온 누리의, 한 몸을 온 누리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온 누리의 발끝, 손끝마다 대뇌를 통해서 전부 무전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마음이 돼 가지고선 거기를 개척을 해 나갑니다, 잘못됐다면. 그러는데 어찌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남까지 괴롭게 하면서까지 옷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에도 수억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은 내 한생각, 즉 말하자면 선장에 달렸다는 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업이 있느니, 인과가 있느니, 또는 윤회에 말리느니 유전성이 있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한생각에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에 따라서 업보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하고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어른이 된 사람도 없으며, 처음부터 배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 사는 도리에 따라서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방향을 나침반을 잘 놔서, 내 이 몸뚱이의 중생들이 한 배를 타고서 수억이 있으니 한 대표인으로서, 선장이 돼 가지고 내 중생을 잘 거둘 줄 알아야 남의 중생도 거둘 줄 알고, 남의 중생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도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한데 합쳐 줬기 때문에 대표인 사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중생들이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입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안다면 이 일체 만물만생이 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식물 하나도, 동물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자기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 모든 것이 따라 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따라 주기에 우리는 한생각을 할 때에 우주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한생각으로 그냥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야 한 손을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 주장자를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주장자를 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게 개화가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에 우리는 따르면서 그 불씨를 탁 들고선 앞장서 줘야 할 이 스님네들이 필요하고, 또 그 앞장서는 스님네들을 뒤따라야 하는 여러분도 알아야 뒤따르지, 모르면 뒤따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쓰라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끄달리면서 밟히면서 피를 흘렸던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대로 이 집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만든 것도, 이 내 몸이라는 법당을 만든 것도 그 인연에 따라서 그 생명들이 한데 모아 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인과로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바로 이것은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이라면 너 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어떤 한 도량에서 소임 맡아 가지고 나가듯, 몸 안에서도 자기 간이면 간, 소장, 대장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대표인 선장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 **나라는 조건을 버린다면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도 딛을 수 있는 겁니다.**
>
> **믿고 딛을 수 있어요.**
>
> **그 아래에 떨어져서 죽은 송장들이, 해골바가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
> **내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 발자국을 떼어 놓을 것입니다.**

어려워야 공부가 되는지요?

질문: 내가 진정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다 분들은 오히려 좀 쉬운 거 같아요. 우리가 병만 낫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이 잘되자고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싹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 가는 선장말이야." 하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은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믿지 않는 걸로 돼 있는 분들이 많죠. 주인공을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걸요, 뭐.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간에 처음 왔어도 한 번 일러 준 거를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급박한 사람, 이런 면 옆사람을 돌아본다든가 하는 자비의 생각이 절대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행이 좀 된 후에는 그렇게 들겠죠.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공부 하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역경, 어려운 경계, 어려운 생활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 사는 게 모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를 헤아릴 수 없는 생활인데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갈가리 찢어서 살 수가 있겠소? 그러니깐 공부하는 것도 저 부처님을 보되 나의 모습으로, 모든 거를 자기 모습과 둘 아니게 그냥 둥글려서 주인공 하나로 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이렇게들 모두 공평치 못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야, 어렵지 않은 처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지. 그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경계에서 분수에 맞게, 우리나라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내 가정의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나온 것도 알아서 내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검소해야 되고 익은 자는 더 고개를 수그려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재산이 있다 그래서 마구 사는 사람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있는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하고 그 반면에, 나는 내가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절 짓는 데 보태는 것만 불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집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굶어서 애쓰고 자식들이 아파서 애쓰고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이 애쓰고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자식이 없는 부모들, 노인네들을 볼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봐서 함이 없이 도와줘라,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없으면 또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겁니다.

넣어도 넣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됐다 뭘 하느냐 이겁니다. 마음 한 접시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벌려도 벌려도 줄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마음 아꼈다가 뭐 하느냐 이겁니다. 마음을 아끼느라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가려 가지고 예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을 안 준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한다고 봅니다.

우주의 기술을 지구에 도입하려면

질문: 얼마 전 책을 보니까 우주 다른 별에는 현재 지구보다 과학문명이 훨씬 발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우주선을 3일 만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타고 와서 없애 버리고, 또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런 생명체들이 있어서 그렇게 과학이 발전됐다면 그런 기술을 현재 지구에다가 도입을 해서 고갈된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지구의 파괴된 환경을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는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도 마음의 진화가 돼서 마음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들 아예 마음의 세계는, 정신세계는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고, 지금 현실의 물질세계로만 올라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쉽게 살 수도 있는 것이건만 너무 복잡다단하게, 그냥 사람이 방방 뛰고 온통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러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삶의 보람이 없이 이렇게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도리를 알면 신선하게 살다가 신선하게, 우리가 헌 옷 벗어서 빨듯이 그냥 헌 옷 벗어서 놓고 아주 세련된 새 옷을 입고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여기 앉아서도 그 도리를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 · 수 · 화 · 풍으로 뭉쳐서 바람과 흙과 물과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서 큰 성을 이루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구라는 집이 됐고 바로 대천세계라는 집이 됐고 중천세계도 있고 하천세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까? 당장 우리 살아나가는 데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대가 공해서 태양이라는 그 자체가 따뜻한 그런, 보람 있는 밝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우리를 전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밝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한마음 그 한 점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도 될 것이요, 천지의 근본도 될 것이요, 우주의 근본도 되니, 스스로 밝아서 돌고 스스로 밝아서 걸릴 게 없는데 어찌 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니 닿는 데가 없거늘 사람들은 모습과 이름을 칭하고 자기의 그 삶을 거기에 취하려고 하니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 그 걸리는 것을 언제 어느 때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문명 시대가, 다른 게 문명 시대가 아니라 정신세계의 문명 시대가 아쉬운 겁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세계가 좀더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재료를 자아낼 수 있는 내 자력이 있어야 연구를 해내지, 천만금을 갖다 준대도 그 연구를 못해 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연구를 해내는 사람은 그래도 심안이 조금 틔어서, 그건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배워 온 그 자력의 능력이 있어서 자력이 틔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입 종 안 내

사단법인 민족 불교 조계종

본종은 내공을 중시하며 각 사암의 법적 · 행정적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신생종단으로서 "각 시도 교구원장 및 종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종 정 : 법보 대종사 전북 익산 용문사 (017-328-3009)
◆ 종회의장 : 금광 대전시 달마선원 (010-6823-0593)
◆ 사정원장 : 해능 경북 울진 일출암 (019-579-2884)
◆ 총무원장 : 진성 전북 김제 관응사 (011-655-0048)

입종서류 · 사암등록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분 1부 · 사진 (3×4Cm) 4매

총무원 ☎ 063)546-0048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 11번지 관응사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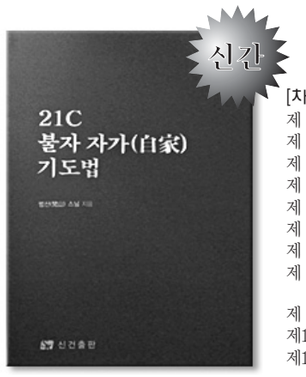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사진(여권용)4매
3.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 세상보기

허 남 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올림픽에 가린 '티베트 인권'

우리에게 잠시나마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던,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울고 웃을 수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도 마침내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가 수영의 박태환과 역도의 장미란, 그리고 야구의 이승엽 등에게 열광하는 동안 중국 속의 또 다른 세계들인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유혈충돌이 계속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올림픽에 앞서 티베트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400여명의 시위 군중이 중국 공안당국의 무차별 발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올림픽 보이콧 내지는 개최지 변경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영국의 찰스 황태자나 미국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유명 인사들은 개막식 참석을 거부하거나 예술 감독직을 사양하기도 했다.

올림픽은 말 그대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겨야할 스포츠 축제마당이다. 그러나 잔칫집의 뒷마당에서 피 흘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축복받은 잔치가 아닐 것이다.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의 중국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한다면 중국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올림픽을 너무 폄훼하는 태도일까?

비록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그루지야 영토를 침공한 것도 올림픽의 평화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국제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어디 비단 그곳뿐이겠는가?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총성은 여전히 멎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알제리, 이집트 등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폭탄이 터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우울한 뉴스가 들린다. 적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지구촌에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이징 올림픽을 무난하게 치른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대국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뚜렷하게 심어줬다. 폐회식에 참석한 국가원수만 120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한 눈에 보여주고도 남는다. 어디 그 뿐인가. '100년의 꿈'이었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자부심은 국가 내부의 단결심을 한층 더 제고시켜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올림픽이 가져다 준 경제적 부가가치는 차치하고라도 중국 당국이 얻은 과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뒤집어쓰게 된 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는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수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하드 파워, 즉 군사력만 있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힘은 인권 및 자유와 같은 사회문화적 자산, 즉 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 오늘날 인류의 지성과 도덕성은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능가하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세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세계의 중심, 곧 '중화(中華)'임을 자처하려면 인간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각종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중국은 이제 커다란 덩치에 걸맞는 여유와 포용력을 보여줄 때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무늬만 강대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임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만약 중국이 이런 대륙적 자신감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막는 것과 같은 옹졸한 처사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중국은 거대한 땅 덩어리에 어울리는 도덕적 사고와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세계는 지금 소프트 파워 지향의 세련된 중국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의 최강대국 반열에 오른 중국의 인권의식은 세계평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서 삶을 꿈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⑨ 내 애인은 나의 참마음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정씨가 항상 지갑 안에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있다. 살기 힘든 요즘,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조용히 꺼내보곤 한다. 동료들이 "무슨 애인 사진이에요?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면서 꺼내보다니" 했다. 정씨는 "맞아요. 제 애인입니다"하며 웃었다. 바로 유난히 정씨가 좋아하는 한 불상의 사진이다.

얼마 전 정씨는 <좋은 글> 중에서 사랑의 시 한편을 보고, 그 내용이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인 것 같다면서 시 전문을 보내왔다. (괄호는 정씨가 덧붙임)

〈싫증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당신(부처님)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아주 특별한 설렘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지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선법가) 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듯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잠시
당신의 목소리(법문 테이프)만으로도 내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일생 동안 함께 얼굴을 부비며 살아도(일생 절에 다녀도)
싫증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난 언제나 당신 속에서 삶을 꿈꿉니다.
당신 안에서 삶을 꿈꾸는 것(성불하려는 것)이 이제는
자아의 상실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나의 꿈이 본래부터 당신과
같은 길에 놓여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난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귀한 인연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도 생각했습니다. (전생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내가 이토록이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미 당신 안에 내가 들어가(중생이 곧 부처)
나는 내 자신을 그리워하듯
당신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속 깊은 구석구석까지에도.
그렇게 내 안에도
당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호흡하고
당신과 대화를 합니다. (항상 관합니다)

정씨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인간이기에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게도 되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 속 참 자기는 세세생생 헤어질 수도 없고 영원히 저를 버리는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과 저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즘 그가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랑합니다, 부처님. 일체 중생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생명의 근본이신 부처님, 제 한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범불교도대회와 청와대의 태도

8월 27일 서울 도심은 불자들로 가득했다. 이미 예고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범불교도 대회에서 조계종을 비롯한 27개 종단은 일심 단합하여 20만 불자를 운집해 전국불교도의 '마음'을 천하에 드러냈다.

범불교도대회를 계기로 현정부 들어 잇달아 터져나온 공직사회의 종교편향 행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이 나라에서 타종교에 대한 오만과 불손이야말로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라는 경각심도 불러 일으켰다. 범불교도대회의 외침이 불자들만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언짢았던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틀림이 없다. 범불교도대회는 우리 사회에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미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도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서와 상관없이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곳이 한 곳 있다. 범불교도 대회를 본 청와대는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불교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사과에 대해서는 범불교도 대회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관련 발언'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감표명 발표 정도에서 뒤를 잇지 않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세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범불교도대회 하루 뒤에는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을 과시해 온 한 목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물론 그 목사가 개인자격으로 초청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력이 다수 포함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란 점에서는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범불교도대회를 전후한 청와대의 태도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감지된다. 지금 청와대는 범불교도대회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몹시 궁금하다. 각종 성명서에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련의 사안들이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한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8·27 범불교도대회가 새 정부 들어 이어진 공직사회의 종교편향 사례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대한 무례한 불심검문을 기화로 기획되고 개최된 것은 맞다. 그러나 청와대는 범불교도대회의 뿌리가 상당히 깊고 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서울시 봉헌 발언'과 "전국 사찰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자"던 부산의 기독교 청년단체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격려한 사건, 김영삼 정권에서의 청와대 불상 이전 사례를 비롯, 청와대와 고위 공직 사회의 종교편향 사례들이 그 뿌리다. 나아가 타인의 사생활과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집요하고 공격적인 선교로 일관해 오며 사회에 적지 않은 불편과 염증을 길러 온 기독교계의 무책임과 각종 훼불 사건, 불교폄훼 발언 등도 깊고 굵은 뿌리가 아닐 수 없다. 범불교도대회를 바라보며 장경동 목사가 "스님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니, 청와대 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8월 27일 불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말 그렇다면 범불교도 대회는 앞으로도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달마사
- 법 명 : 임수월하 보살(임 분상)
- 주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 791번지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수월관음도

사찰법당과 스님 접견실에 걸으면 품격 가정에 걸으면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 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까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사찰의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으며 스님 개인 소장품으로 손색이 없다.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를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국보급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하고 베르린 왁시 처리를 하지 않아 2~3년만 지나면 색상이 탈색되고 진품 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특별보시.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행,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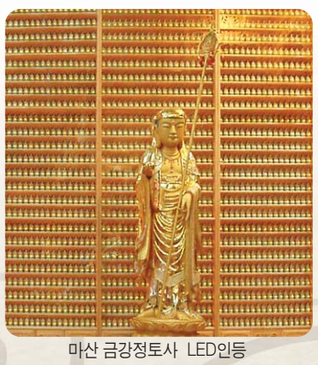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